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지 형 주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오브라도르스 《스페인 예술가곡집》  
2권의 분석 연구

201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지 혜 진

오브라도르스 《스페인 예술가곡집》  
2권의 분석 연구

지 형 주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지 혜 진

# 인 준 서

지혜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11월

심사위원장.....인

심 사 위 원.....인

심 사 위 원.....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에서는 오브라도르스(Fernandos J. Obradors, 1897-1945)의 《스페인 예술가곡집 *Canciones Clásicas Españolas*》 2권이 분석 연구된다. 이미 많이 연주되고 연구되어진 1권에 이어 아직 국내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2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2권은 다양한 주제의 총 다섯 곡으로 구성된 모음집이다. 1곡과 3곡은 작자미상의 가사이고 2, 4, 5곡은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 1547-1616) 등 16세기부터 18세기의 스페인 유명 작가들의 글을 사용하였다.

제1곡 〈티라나 텔 사라디요 *Tirana del Zarandillo*〉에서는 자기도취에 빠진 약삭빠른 주인공이 스페인 전통음악의 한 장르인 티라나를 부른다. 반음계의 진행이 많고, 스페인 음악의 특징인 당김음을 볼 수 있다. 프레이즈 끝에 꾸밈음을 사용하여 장식하였다. 제2곡 〈충고 *Consejo*〉는 여자는 유리 갈기에 시험해 보지 말아야 하며, 깨질 위험이 있는 곳에 놓으면 안된다는 내용이다. 노래 선율과 반주에서 계속적으로 사용된 스타카토는 “Vidrio (유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빠른 템포로 진행되는 제3곡 〈엘 툼바 이 레 *El tumba y lé*〉는 철없는 순진한 어린 소녀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내용이다. 포르테의 셈여림으로 거칠게 노래하는 선율과 후렴구의 리듬이 계속 반복된다. 제4곡 〈아가씨와 대머리들 *La moza y los calvos*〉은 엄마들에게 딸을 대머리에게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나, 남자들은 대머리가 되어간다는 풍자적인 내용이다. 조성과 프리지안 선법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춤곡의 리듬이 반복된다. 제5곡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Confiado jilguerillo*〉는 바람둥이 같은 남자를 방울새에 비유하며, 그러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고 말한다. 노래 선율은 멜리스마적이며, 증2도를 사용하였다. 반주에는 기타의 라스게아도 주법이 보인다. 또한 리듬의 반복

으로 곡의 통일성을 높인 것을 볼 수 있다.

오브라도르스의 《스페인 예술가곡집》 2권은 가사에 담긴 정서를 스페인 음악적 특징에 잘 담아낸 모음집으로 오브라도르스 가곡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본 논문을 통해 오브라도르스의 《스페인 예술가곡집》 2권이 연주계에 소개되어지고, 2권의 곡들을 접하는 연주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목 차

논문개요 .....	i
목 차 .....	iii
표 목차 .....	iv
악보 목차 .....	v
I. 서론 .....	1
1. 논문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논문의 내용 및 방법 .....	2
II. 오브라도르스의 음악 및 《스페인 예술가곡집》 .....	3
1. 오브라도르스의 생애와 음악 .....	3
2. 《스페인 예술가곡집》의 소개 .....	4
III. 오브라도르스 《스페인 예술가곡집》 2권의 분석 연구 .....	6
1. 〈티라나 델 사라디요 <i>Tirana del Zarandillo</i> 〉 .....	6
2. 〈충고 <i>Consejo</i> 〉 .....	18
3. 〈엘 툼바 이 레 <i>El tumba y lé</i> 〉 .....	28
4. 〈아가씨와 대머리들 <i>La moza y los calvos</i> 〉 .....	41
5.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i>Confiado jilguerillo</i> 〉 .....	59
IV. 결론 .....	79
참고문헌 .....	81
ABSTRACT .....	83

## 표 목차

[표 1] 〈티라나 델 사란디요〉 곡의 구성 .....	8
[표 2] 〈충고〉 곡의 구성 .....	20
[표 3] 〈엘 툼바 이 레〉 곡의 구성 .....	30
[표 4] 〈아가씨와 대머리들〉 곡의 구성 .....	43
[표 5]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곡의 구성.....	61

## 악보 목차

[악보 1-1] <티라나 텔 사란디요> 마디1-18 .....	10
[악보 1-2] <티라나 텔 사란디요> 마디19-23 .....	12
[악보 1-3] <티라나 텔 사란디요> 마디33-36 .....	12
[악보 1-4] <티라나 텔 사란디요> 마디41-47 .....	13
[악보 1-5] <티라나 텔 사란디요> 마디62-68 .....	15
[악보 1-6] <티라나 텔 사란디요> 마디84-94 .....	16
[악보 2-1] <충고> 마디1-9 .....	21
[악보 2-2] <충고> 마디9-16 .....	22
[악보 2-3] <충고> 마디18-24 .....	23
[악보 2-4] <충고> 마디26-32 .....	25
[악보 2-5] <충고> 마디36-40 .....	26
[악보 2-6] <충고> 마디44-47 .....	27
[악보 3-1] <엘 톱바 이 레> 마디17-21 .....	31
[악보 3-2] <엘 톱바 이 레> 마디27-30 .....	32
[악보 3-3] <엘 톱바 이 레> 마디34-41 .....	33
[악보 3-4] <엘 톱바 이 레> 마디42-51 .....	34
[악보 3-5] <엘 톱바 이 레> 마디59-64 .....	35
[악보 3-6] <엘 톱바 이 레> 마디77-80 .....	36
[악보 3-7] <엘 톱바 이 레> 마디96-100 .....	37
[악보 3-8] <엘 톱바 이 레> 마디103-112.....	39
[악보 4-1]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2-3.....	45
[악보 4-2]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17-20 .....	46
[악보 4-3]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29-32 .....	47
[악보 4-4]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33-36 .....	48

[악보 4-5]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47-52 .....	49
[악보 4-6] 프리지안 선법 .....	50
[악보 4-7]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61-70 .....	50
[악보 4-8]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77-82 .....	51
[악보 4-9]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93-101 .....	52
[악보 4-10]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114-118 .....	54
[악보 4-11]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134-146 .....	55
[악보 4-12]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155-166 .....	56
[악보 4-13] 리디안 선법 .....	57
[악보 4-14]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169-172 .....	57
[악보 5-1]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4 .....	62
[악보 5-2]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7-9 .....	63
[악보 5-3]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10-16 .....	64
[악보 5-4]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18-21 .....	65
[악보 5-5]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21-22 .....	66
[악보 5-6]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23-24 .....	67
[악보 5-7]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28-31 .....	68
[악보 5-8]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34-40 .....	69
[악보 5-9]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47-51 .....	71
[악보 5-10]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60 .....	72
[악보 5-11]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91-93.....	74
[악보 5-12]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96 .....	75
[악보 5-13]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103-107.....	76
[악보 5-14]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109-111.....	77
[악보 5-15]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118-122.....	78

# I. 서론

## 1. 논문의 필요성 및 목적

오브라도르스(Fernandos J. Obradors, 1897-1945)는 20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스페인의 작곡가로, 주로 성악곡을 작곡하였다. 4권으로 이루어진 《스페인 예술가곡집 *Canciones Clásicas Españolas*》은 그의 대표적인 성악곡이다. 4권의 모음집 중 가장 유명한 것은 1권이다. 1권의 7곡은 국내에서 자주 연주되고 있으며, 《스페인 예술가곡집》을 주제로 쓴 모든 선행 논문들이 1권을 연구하였다.<sup>1)</sup>

본 논문에서는 2권에 수록된 총 5곡을 연구하고자 한다. 2권의 제4곡 〈아가씨와 대머리들 *La moza y los calvos*〉은 국내에서 종종 연주되고 있지만 2권 전체를 연주하는 경우는 없고, 학위논문을 통한 연구도 국내에서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이미 많이 연구되어진 1권이 아닌, 새롭게 2권을 분석 연구한다.

2권의 5곡은 다양한 내용의 가사를 사용하였다. 1곡과 3곡은 작자미상의 가사로 되어있고 2, 4, 5곡은 세르반테스 등 16세기부터 18세기의 스페인 유명 작가들의 글을 사용하였다. 그들의 글을 어떻게 음악적으로 구현했는지 밝혀내는 것은 학문적으로 중요한 작업이다. 본 논문을 통해 오브라도르스의 《스페인 예술가곡집》 2권이 연주계에 보다 폭넓게 소개되어지고, 2

---

1) 김지은, “오브라도르스 7개의 고전적인 스페인 노래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배지숙, “오브라도르스의 《7개의 고전적인 스페인 노래》에 나타난 플라멩코 특징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김나연, “스페인 민속음악에 따른 F. J. Obradors의 「Classical spanish Songs」 분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이진숙, “F. J. Obradors의 *Canciones Clásicas Españolas Volumen 1* 분석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박성운, “F. J. Obradors의 「*Canciones Clásicas Españolas*」 분석을 통한 19세기 스페인 민속음악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신아름, “F. Obradors의 가곡 <*Canciones Clasicas Espanolas*>의 가창을 위한 연구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권의 곡들을 접하는 연주자들에게 심층적인 이해를 돕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 2. 논문의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먼저 오브라도르스의 생애와 음악에 대해 알아보고, 그의 대표적인 성악곡 《스페인 예술가곡집》을 소개한다. 오브라도르스 《스페인 예술가곡집》 2권의 제1곡 〈티라나 텔 사라디요 *Tirana del Zarandillo*〉, 제2곡 〈충고 *Consejo*〉, 제3곡 〈엘 툼바 이 레 *El tumba y lé*〉, 제4곡 〈아가씨와 대머리들 *La moza y los calvos*〉, 제5곡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Confiado jilguerillo*〉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한다.

분석의 방법에 있어서는 각 곡의 시를 파악하였고, 각 연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스페인어 텍스트와 영어로 직역된 텍스트를 찾아볼 수 있었으나<sup>2)</sup>, 시로 번역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전문번역업체 ‘대교번역’에 의뢰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 원문이 아니기에 정확한 시의 구조는 알 수 없으나, 음악의 형식에 따라 텍스트를 나눠서 구조를 파악해보았다. 곡의 형식에 따라 구분, 조성, 빠르기, 박자, 시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였고, 부분별로 세부 분석하였다. 가사를 음악에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고, 가사 또는 형식이 반복될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비교하며 분석하였다. 스페인 음악의 특징도 찾아보았다. 분석에 사용된 악보는 1992년 마드리드에서 출판된 《스페인 예술가곡집》 2권이며<sup>3)</sup>, 소프라노 린느 포르탱(Lyne Fortin)과 피아니스트 에스터 곤티어(Esther Gonthier)의 연주를 참고하였다.<sup>4)</sup>

---

2) <https://www.ipasource.com>.

3) Obradors, Fernando. 『Canciones Clásicas Españolas』, Volumen II, Madrid: Union musical ediciones S.l, 1992.

4) Fortin, Lyne. & Gonthier, Esther. 「Gardens of Spain」 (2010.10.24 발매).

## Ⅱ. 오브라도르스의 음악 및 《스페인 예술가곡집》

### 1. 오브라도르스의 생애와 음악

오브라도르스는 1897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독학으로 화성과 대위법, 작곡을 공부하였다. 그는 그란 카나리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Gran Canaria Philharmonic Orchestra)를 지휘하였고, 이후 라스 팔마스 음악원(Las Palmas Conservatory)에서 강의를 하였다.

그와 동시대인 대부분의 작곡가들은 프랑스에서 명성을 찾기 위해 스페인을 떠났지만, 오브라도르스는 자신의 이름을 카탈로니아어로 남겼다. 때때로 그의 첫 성은 두 카탈루냐어 이름(Jaume Andreu)으로 분할된다.

그의 오케스트라 작품 《*El Poema de la Jungla*》는 키플링(Rudyard Kipling, 1865-1936)의 『정글 북(The Jungle Book stories)』에서 영감을 받았고<sup>5)</sup>, 그는 이탈리아의 오페라와 유사한 스페인의 경 희극인 사르수엘라(Zarzuela)와 성악곡을 많이 작곡하였다. 대표적인 사르수엘라는 《비제의 파란돌라의 회답 *Répica a la Farandola de Bizet*》이며, 대표적인 성악곡은 《스페인예술가곡집 *Canciones Clásicas Españolas*》이다.

《스페인예술가곡집》에 실린 곡들은 스페인의 민요와 춤곡의 리듬을 반영했으며, 서정적이고 무게와 짜임새가 가볍다. 또한 화려한 성악성부를 볼 수 있다.<sup>6)</sup>

---

5) “Obradors”. [https://en.wikipedia.org/wiki/Fernando\\_Obradors](https://en.wikipedia.org/wiki/Fernando_Obradors) [2016년 10월 31일 검색].

6) 최경연, 『쉽게 배우는 스페인어 디션과 문화』,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3), p.105.

그의 가곡들은 대부분 민요의 편곡으로 가볍게 짜여졌지만 스페인 가곡의 민속적인 개념을 전형화했다. 가곡들은 일반적으로 민요와 18세기 후반의 극음악인 토나디아(tonadilla)에서 얻어졌다. 그는 15세기의 아름다운 가사들과 18, 19세기의 대중적인 시, 그리고 20세기의 현대시까지 폭넓은 영역의 가사들을 사용했다.<sup>7)</sup>

## 2. 《스페인 예술가곡집 *Canciones Clásicas Españolas*》의 소개

오브라도르스는 1921과 1941년 사이에 4권의 《스페인예술가곡집》을 작곡했다. 《스페인예술가곡집》은 총 23곡으로 이루어졌으며 15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대중적 민속음악을 취합하여 만들었다.<sup>8)</sup>

그의 가곡은 조성과 선법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며 미(E)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미선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당김음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불임줄의 의한 당김음, 리듬에 의한 당김음, 악센트에 의한 당김음은 스페인 음악의 리듬적인 특징이다. 또한 동형진행을 이용해서 선율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선율과 리듬의 반복은 곡의 통일성을 높인다. 반주에서는 트릴과 스타카토를 사용하였고, 아르페지오의 반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피아노의 내성이나 베이스 성부에서 반음계적인 진행들이 많으며 불협화음을 볼 수 있다.<sup>9)</sup>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스페인예술가곡집》 2권은 총 5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3곡은 16세기부터 18세기의 스페인 유명 작가들의 글로 되어있다. 제2곡 〈충고 *Consejo*〉는 돈키호테의 작가인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 1547-1616)의 시이며, 제4곡 〈아가씨와 대머리들 *La moza y*

7) 한선우, “스페인 예술가곡의 특징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73.

8) 김선옥, “스페인 예술가곡의 역사적 고찰과 문헌연구”, 『전북대학교 교육 논총 제18집』, (1998), p.27.

9) 한선우, “스페인 예술가곡의 특징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p.73-76.

*los calvos*〉은 스페인의 대표 작가인 케베도(Francisco Quevedo, 1580-1645)의 시이다. 제5곡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Confiado jilguerillo*〉는 스페인 극작가인 카니사레스(José de Canizares, 1676-1750)의 시이다. 제1곡 〈티라나 델 사라디요 *Tirana del Zarandillo*〉와 제3곡 〈엘 툼바 이 레 *El tumba y lé*〉는 작자미상의 가사로 되어있다.

### Ⅲ. 오브라도르스 《스페인예술가곡집》 2권의 분석 연구

#### 1. 〈티라나 텔 사라디요 *Tirana del Zarandillo*〉

##### 1)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

제1곡의 가사는 작자미상으로 되어있다. 곡의 제목 〈티라나 텔 사라디요〉에서 ‘티라나(Tirana)’는 스페인 전통 음악의 한 장르이며, ‘사라디요(Zarandillo)’는 춤 동작 중에 하나이다. 한국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사라디요가 들어가 있는 티라나’라고 할 수 있다.

제1곡 악보 첫머리에는 ...dicen que así contestaba la naranjera a los requiebros que oía frente al puesto... 라는 짧은 글이 적혀있다. “노점상 앞에서 들리는 달콤한 말에 오렌지를 파는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말로, 주인공이 오렌지를 파는 여자임을 추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이 곡에서는 자기도취에 빠진 약삭빠른 주인공이 티라나를 부른다. 1연은 주인공이 사라디요 춤을 추며 노래한다. 2연에서는 자아도취에 빠진 주인공을 볼 수 있다. 3연은 노인들과 젊은이들을 속이는 약삭빠른 주인공의 노래와 춤이 반복된다. 텍스트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Zarandillo andillo y andillo.

Zarandillo andillo y andar.

¡Te la voy a cantar! ¡Ay!

Estos comercios de cesta

Sí que son de utilidad.

사라디요 안디요 이 안디요.

사라디요 안디요 이 안다르.

내가 노래를 불러주겠어! 아이!

이런 바구니 가게들은

쓸모가 많구나.

Me la vas a escuchar:	내 말을 들어봐.
Un corazoncito tengo	내 마음은
Tan amable y tan jovial,	너무 상냥하고 쾌활하기 때문에
Que no hay hombre en este mundo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A quien yo le quiera mal.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없지.
Engaño a los viejos con mis monerías,	노인들은 내 귀여운 짓에 속고
Embromo a los mozos con mis tonerías,	젊은이들은 내 못된 짓에 속지.
Con mis tonerías.	내 못된 짓으로.
¡Ay! Dicha está,	아이! 노래를 부르자.
Dicha está la tirana,	티라나를 부르자.
Del zarandillo andillo	사란디요 안디요
andillo y andar.	안디요 이 안다르

제1곡은 총 3연 17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1연 5행, 2연 5행, 3연 7행으로 되어있다. 곡에서는 1연의 5행 “Sí que son de utilidad(쓸모가 많구나)”를 반복하였고, 1연의 1-2행인 “Zarandillo andillo y andillo, Zarandillo andillo y andar”를 2연의 시작에 반복하였다. 3연의 마지막에는 3연 4행의 “Dicha está (노래를 부르자)”를 한 번 더 반복하였다.

제1곡은 18마디의 비교적 긴 전주로 시작된다. 전주, A부분, A'부분, B부분으로 되어있다. 조성은 E장조이고 전주에서 ‘Moderato’에서 ‘Allegretto’로 빠르기의 변화가 있다. ‘Allegretto’의 빠르기로 계속되다가 끝부분에서 ‘Lento’로 바뀐다. 3/4박자로 시작하여 많은 변박을 볼 수 있다. [표 1]은 곡의 형식에 따른 구분, 조성, 빠르기, 박자, 시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마디 수는 못갓춘마디를 포함했다.

[표 1] 〈티라나 델 사란디요〉 곡의 구성

	구분	마디	조성	빠르기	박자	시의 내용
전주	(18마디)	1-18	E	Moderato- Allegretto	3/4	
A	a(7)	18-24	E a C E	Allegretto	3/8	사란디요 춤 추며 노래하는 주인공
	b(9)	24-32			3/4 2/4 3/4	
	c(9)	33-41			3/8	
	c' (5)	42-46				
A'	a' (7)	47-53	E		4/8 3/8	자아도취에 빠진 주인공
	간주(3)	53-55				
	b' (5)	56-60			3/4 2/4 3/8	
	c'' (8)	61-68	a E			
	간주(5)	68-72	E			
	c''' (8)	73-80	a E			
	간주(3)	81-83	E			
B	d(11)	84-94	E		3/8	노인들과 젊은이들을 속인 약삭빠른 주인공의 노래와 춤
	간주(3)	95-97				
	e(7)	97-103				
	a'' (4)	104-107				
	간주(6)	107-112				
	f(4)	112-115		Lento		

## 2) 곡 분석

### (1) 전주

전주는 총 18마디이고 E장조, 3/4박자이다. 보통빠르기인 ‘Moderato’로 시작하여 마디7에서 ‘Allegretto’로 빠르기가 바뀐다. 리듬은 4분음표와 8분음표의 움직임으로 비교적 단순하다.

마디1의 첫 화음은 꾸밈음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 전주는 반음계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다. 왼손 마디4-5의 D#-D $\flat$ -C#, 오른손 마디5의 F#-E#-E $\flat$ , 왼손 마디5-6의 C#-C $\flat$ -B가 서로 주고 받으며 반음계로 하행한다. 마디10에서는 오른손 F#-F $\flat$ -E와 왼손 D#-D $\flat$ -C#이 같이 반음계로 하행한다. 또한 왼손 마디15의 D#-D $\flat$ -C#이 반음계로 하행하며, 오른손 마디16은 D#-E-E#-F#로 반음계가 상행한다. 왼손 마디17-18은 C#-C $\flat$ -B로 반음계 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전주는 계속되는 반음계의 진행과 스타카토의 사용을 볼 수 있다. 마디16에서 셈여림이 점점 커지고 마디17-18에서 포르테와 ‘rallentando’를 표현하여 연주한다[악보 1-1].

[악보 1-1] <티라나 델 사라디요> 마디1-18

# LAS GRACIOSAS

I

Tirana del Zarandillo

F.J. OBRADORS

Moderato

꾸밈음 *sfz* >

Allegretto.

반음계

*mf*

*p ten. ten.* *Scherzando.*

Za ran di llo an di llo yan

quasi pizz.

*f rall.* *stacc.*

Detailed description: This block contains the first four systems of a musical score. The first system is marked 'Moderato' and features a piano introduction with a circled melodic phrase in the right hand and a bass line in the left hand, with the instruction '꾸밈음 sfz >'. The second system is marked 'Allegretto.' and continues the piano accompaniment with the instruction '반음계'. The third system shows the piano accompaniment with a circled chord and the instruction 'mf'. The fourth system contains the vocal line, starting with a rest and then the lyrics 'Za ran di llo an di llo yan' in a 3/8 time signature, marked 'p ten. ten.' and 'Scherzando.'. Below the vocal line is the piano accompaniment for this system, marked 'quasi pizz.', 'f rall.', and 'stacc.'.

## (2) A부분

A부분은 총 29마디이다. E장조로 시작하여 a단조, C장조를 보인다. 박자는 3/8으로 시작하여 3/4, 2/4, 그리고 3/4으로 변박되며 부분 c부터는 3/8으로 계속 된다. A부분은 주인공이 사란디요 춤을 추며 노래한다.

마디18은 노래 선율의 셈여림이 피아노로 작게 시작되며, 두 음에 ‘tenuto’를 표현하여 노래한다. 마디18-19의 노래 선율은 B-B#-C#으로 반음계상행한다. 마디19에서 3/8박자로 변박이 되며, 노래 선율을 ‘scherzando’로 익살스럽게 연주하라는 지시어가 있다. 두 음 슬러와 스타카토를 살려 노래한다. 부분 a의 노래 선율은 전주 ‘Moderato’의 멜로디와 같다. 전주는 3/4박자였지만, 노래는 3/8박자로 되어있다. 반주 부분에는 ‘quasi pizzicato’로 연주하라는 기호가 있다. 이는 스페인 음악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타의 한 음씩 줄을 튕기는 폰테아도 주법을 나타낸다.<sup>10)</sup>

반주는 임시표를 사용하여 반음계로 진행된다. 왼손 마디19-21의 G#-A-A#-B는 반음계로 상행한다. 왼손 마디21-22는 D#-C#으로 반음이 내려간다. 또한 오른손 마디19의 B#-C#, 마디20의 D#-E, 마디21의 FX-G#은 두 음이 반음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반음계의 사용은 춤동작 중 ‘andillo(작은 걸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디23에서 ‘poco ritardando’로 약간 느려지며, 악곡의 마침을 뜻하는 겹세로줄 위의 늘임표가 있다[악보 1-2].

---

10) 병전자랑, 『스페인 음악의 즐거움』, 김종만 역.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8), p.98.

[악보 1-2] 〈티라나 델 사란디요〉 마디19-23

반음계  
*p ten. ten. Schierzando. poco rit.*  
 Za ran di llo an di llo yan di llo Za ran di llo an di llo yan  
 quasi pizz. 반음  
 stacc.

마디24의 노래 선율에는 ‘deciso’로 분명하게 또는 똑똑히 연주하라는 지시가 있고 마디24-28에는 3번의 변박이 있다. 부분 b는 앞부분과 대조적인 셈여림인 포르테로 음마다 악센트를 살려서 연주한다. 마디29-32의 반주는 셈여림이 피아노로 다시 작아지고 조성은 a단조로 바뀐다. 반주는 2도 음정으로 움직이며 마디30부터 노래 선율이 ¡Ay!를 3마디동안 지속하여 부른다. 마디32에 있는 겹세로줄 위의 늘임표는 악곡의 마침을 뜻한다.

마디33부터의 부분 c는 C장조이고, 다시 3/8박자로 진행된다. 앞에서 보았던 ‘scherzando’ 지시어가 다시 보인다. 노래 선율은 당김음을 사용하였고, 노래 선율이 16분음표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반주에서도 음표 길이에 의한 당김음과 악센트에 의한 당김음을 많이 사용하였다. 반주의 상성부는 3화음으로 되어있고, 반주의 멜로디는 노래 선율과 같은 음을 연주한다.

[악보 1-3] 〈티라나 델 사란디요〉 마디33-36

*Schierzando*  
 Es tos co mer cios de ces ta

마디40부터 반주는 임시표의 사용으로 반음계 진행이 보인다. 마디41의 F $\sharp$ -E-E $\flat$ -D $\sharp$ -C $\sharp$ 과 마디41-45의 B $\flat$ -A-G $\sharp$ -G $\flat$ -F $\sharp$ -F $\flat$ -E-D $\sharp$ 이 반음계로 하행하며, 왼손 마디42-44의 B $\flat$ -A-A $\flat$ -G $\flat$ -F $\sharp$ 이 반음계로 하행한다. 부분 c의 노래선율에 나온 16분음표의 움직임이 반주에서 나오고 부분 c'의 노래 선율은 16분음표의 움직임이 없어져 단순해졌다. 마디46-47에서 6도 화음이 순차적으로 하행하며 느려지면서 A'부분이 시작된다.

[악보 1-4] 〈티라나 텔 사라디요〉 마디41-47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s 41-47 of the piece 'Tirana Tel Saradiyo'. It consists of two staves: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key signature is three sharps (F#, C#, G#). The vocal line has the lyrics 'si que son de u ti li dad' and is marked with '반음계' (chromatic).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complex rhythmic pattern with 'm.i.' and 'm.d.' markings.

### (3) A' 부분

A' 부분은 총 37마디이다. E장조와 a단조가 번갈아 나타난다. 박자는 4/8를 시작으로 3/8, 3/4, 2/4, 3/8으로 변박되며 부분 c" 부터는 3/8박자로 계속 진행한다. A' 부분은 주인공이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

마디48부터의 부분 a'는 부분 a의 노래 선율보다 더 많은 스타카토를 사용하였다. 부분 a의 마디23과 비교했을 때 마디52의 반주는 오른손이 같은 음을 한 옥타브 아래에서 연주한다. 마디53부터 나오는 새로운 간주는 앞부분과 대조적인 셈여림인 포르테로 연주한다. 간주는 악센트로 인해 2/4로 변박된 느낌을 주며, 이것을 '헤미올라(Hemiola)'라고 한다. 마디56부터의 부분 b'는 9마디였던 부분 b에 비해 길이가 짧아졌고, 연속적인 장화음의 차용화음(b VI, b VII, b VI<sub>7</sub>)을 사용하여 선율을 강조하였다. 마디60에서 'rallentando'로 점점 느려진다.

부분 c"는 a단조로 진행되다가 다시 E장조의 조성으로 돌아간다. 부드럽게 이어서 하행하는 하성부와 스타카토로 상행하는 상성부는 서로 반진행한다. 마디68의 노래 선율에는 짧은 앞꾸밈음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프레이즈의 끝에 살짝 꾸밈음을 넣어 장식하는 스페인 음악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sup>11)</sup> 노래 선율의 16분음표 움직임과 앞꾸밈음은 '명랑하고 유쾌하다'는 뜻의 "jovial"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악보 1-5].

---

11) 병전자랑, 『스페인 음악의 즐거움』, 김종만 역.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8), p.19.

[악보 1-5] 〈티라나 델 사란디요〉 마디62-68

co ra zon ci to ten go tan a ma hle y tan jo — vial,

a: V6      V i      V      E: V7      I

마디68부터의 간주는 마디7-10인 전주 ‘Allegretto’의 앞부분과 동일하다. 전주는 3/4박자였지만 간주는 3/8박자로 진행된다. 마디71부터 ‘rallentando’로 점점 느려진다. 마디73부터 시작되는 부분 c'''는 부분 c''와 비교했을 때 반주 부분은 동일하나 노래의 가사가 다르고 노래 선율은 16분음표의 움직임이 없어져 단순해졌다. 부분 c''와 부분 c'''의 노래 첫 음은 ‘tenuto’를 표현한다. 마디81-83의 짧은 간주는 앞에 나오는 마디53-55의 간주와 같다.

(4) B부분

B부분은 총 32마디이다. E장조이고 3/8박자이다. 빠르기가 ‘Allegretto’로 계속되다가 곡의 마지막인 부분 f에서 ‘Lento’로 바뀐다. B부분은 노인들과 젊은이들을 속이는 약삭빠른 주인공의 노래와 춤이 반복된다.

마디84부터의 부분 d는 노래 선율과 반주가 피아니시모로 시작된다. 이 부분은 노래 선율이 같은 리듬을 3번, 그리고 2번 반복한다. 반주에서 왼손의 마디85-86의 E-D#-D#-C#과 마디87-88의 C#-C#-B로 반음계 하행한다.

마디84부터의 가사는 “Engaño a los viejos con mis monerías, Embromo a los mozos con mis tunerías(노인들은 내 귀여운 짓에 속고 젊은이들은 내 못된 짓에 속지)”이다. 이 부분의 반주는 약박에 ‘sforzando’와 악센트를 사용하여 귀여운 짓과 못된 짓으로 속이는 주인공의 행동을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마디90부터 “Con mis tunerías(내 못된 짓으로)”가 2번 반복된다. 노래 선율과 반주부분에 나오는 16분첩표와 8분첩표는 장난끼 넘치는 못된 행동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

[악보 1-6] <티라나 델 사라디요> 마디84-94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84-89. The vocal line starts with a *pp* dynamic and includes the lyrics "En ga ño a los vie jos con mis mo ne rí as, Em bro mo a los".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bass line with a *pp* dynamic and a treble line with chords and a *반음계* (chromatic scale) marked with *sfz* and *p*. A *3번 반복* (3 times repeat) sign is placed above the vocal line.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90-94. The vocal line has the lyrics "mo zos con mis tu ne rí as con mis tu ne rí as". The piano accompaniment continues with *sfz* and *p* dynamics, ending with an *mf* dynamic. A *2번 반복* (2 times repeat) sign is placed above the vocal line.

마디95부터의 짧은 간주는 악센트로 인한 당김음을 사용했다. 이 간주는 다음 노래 선율에 나오는 리듬을 먼저 제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마디 97-101의 가사는 “ Ay! Dicha está, Dicha está la tirana”이다. ♪♪♪ 리듬을 3번 반복하며 리듬감을 갖는 노래 선율은 노래를 부르자는 가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디104부터의 부분 a”는 부분 a의 가사가 반복되나, 반주는 앞에서 2번 반복된 부분 a의 반주와 다르다. 마디105부터 ‘rallentando’로 점점 느려지며 반주에는 스타카토가 사용되었다.

마디107부터의 간주는 16분음표의 6도 화음이 하행하고 스타카토가 붙여진 8분음표가 상행하는 것이 두 번 반복된다. 5마디에 걸쳐 셈여림이 점점 작아진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빠르기가 ‘Lento’로 바뀌어 더욱 차분해지며 노래는 가사 “Dicha está(노래를 부르자)”를 반복한다. 노래가 ‘lentemente’로 천천히 마무리를 하고, 반주는 피아니시시모로 조용하게 화음을 울리며 끝을 맺는다.

제1곡에서 노래 선율을 미리 제시하는 전주는 반음계의 진행이 많았다. A부분과 B부분의 반주에서도 반음계의 진행을 볼 수 있다. A부분의 부분 c는 노래 선율과 반주에서 당김음을 사용하였고, B부분의 간주에서도 당김음의 사용을 볼 수 있다. 전주의 시작에서 보았던 꾸밈음을 A’부분의 노래 선율에서도 볼 수 있다. 제1곡은 프레이즈 끝에 ‘rallentando’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 곡은 악보 끝에 Sobre un tema de P.Esteve\_1779.라고 적혀있다. 스페인 작곡가인 에스테베(Pablo Esteve, 1730-1794)의 주제를 사용했으나, 어떤 주제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 2. 〈충고 *Consejo*〉

### 1)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

제2곡의 악보 첫머리에는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 1547-1616)의 돈키호테라고 적혀있다. 스페인 작가인 세르반테스가 1605년에 발표한 풍자소설 돈키호테는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고 있는 불후의 명작이다.<sup>12)</sup> 제2곡은 이러한 돈키호테의 본문 내용으로 되어있다.

시의 내용은 여자는 유리 같기에 시험해 보지 말아야 하며 깨질 위험이 있는 곳에 놓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1연과 3연에서는 여자는 유리 같기에 시험해 보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반복되며, 2연은 깨지기는 쉽고 붙일 수는 없으니 깨질 위험이 있는 곳에 놓지 말라고 말한다. 4연은 모두가 이 의견에 동의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다나에(Danae)가 존재한다면 황금비도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sup>13)</sup> 텍스트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

12) 마상영, 『스페인 문화예술의 산책』, (서울: 도서출판 청동거울, 2006), p.167.

13) 시에 나오는 다나에와 황금비로 변신한 제우스의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다. 다나에는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의 딸이다. 아크리시오스 왕은 딸이 낳은 손자에 의해 살해당할 것이라는 신탁을 듣고 다나에를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청동으로 만든 탑에 가두었다. 그러나 제우스는 황금비로 변신하여 다나에에게 접근한다는 이야기이다.

Es de vidrio la mujer	여자는 유리 같지.
Pero no se ha de probar	하지만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Si se puede o no quebrar	시험해 보지 말아야 한다.
Porque todo podría ser,	깨질 수도 있으니까.

¡Ay! Y es más facil el quebrarse	아이고! 깨지는 것은 쉽고
Y no es cordura ponerse	붙일 수 없는 것을
A peligro de romperse	깨질 수 있는 위험에 놓는 것은
Lo que no puede soldarse.	올바른 정신이 아니지.

Que es de vidrio la mujer	여자는 유리 같지.
Pero no se ha de probar	하지만 시험해 보지 말아야 한다.
Porque todo podría ser,	깨질 수도 있으니까.

Y en esta opinión estén todos	그리고 모두가 이 의견에 동의하고
Y en razón la fundo:	이에 대한 이유도 있지.
Que si hay Dánaes en el mundo,	이 세상에 다나에가 존재한다면
Hay pluvias de oro también.	황금비도 역시 존재하지.

제2곡은 총 4연 15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1연 4행, 2연 4행, 3연 3행, 4연 4행으로 되어있다. 3연은 1연의 반복이지만, 1연의 3행은 반복되지 않는다. 곡의 마지막에는 3연의 1행 “Que es de vidrio la mujer(여자는 유리 같지)”가 반복된다.

제2곡은 A부분, B부분, A'부분, B'부분으로 되어있다. 조성은 D장조이고 빠르기는 ‘Tempo di Pavana’로 계속되다가 끝부분에서 ‘Lento’로 바뀐다. 4/4박자로 시작되나 종종 2/4박자로 변박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는 곡의 형식에 따른 구분, 조성, 빠르기, 박자, 시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2] 〈충고〉 곡의 구성

	구분	마디	조성	빠르기	박자	시의 내용
A	전주 (5마디)	1-5	D	Tempo di Pavana	4/4	여자는 유리 갈기에 시험해 보지 말아야 한다
	a(4)	6-9			2/4	
	b(4)	9-12			4/4	
	간주(6)	12-17				
B	c(6)	17-22	D-F #		4/4	깨질 위험이 있는 곳에 놓으면 안된다
	간주(3)	22-24				
	a' (3)	24-26				
A'	a'' (5)	26-30	D		4/4	여자는 유리 갈기에 시험해 보지 말아야 한다
	d(3)	30-32				
B'	c' (9)	33-41	D		2/4	왜냐하면 다나에가 존재한다면 황금비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간주(3)	41-43				
	a''' (5)	43-47		Lento		

## 2) 곡 분석

### (1) A부분

A부분은 총 17마디이며 D장조이고 빠르기는 ‘Tempo di Pavana<sup>14)</sup>이다. 4/4박자에서 2/4박자로 변박되었다가 다시 4/4로 바뀐다. A부분은 여자는

14) 파반(Pavane)은 16세기 초의 궁정무용이다. 스페인에서 기원한 것으로 생각되며 공작(Pavo)를 모방한 위엄에 찬 모습으로 천천히 춘다.

유리 같기에 시험해 보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주는 스타카토가 붙은 8분음표와 8분쉼표가 사용된 단순한 리듬으로 되어 있다. 마디1-3의 오른손 내성에서 마디7-9의 노래선율이 먼저 제시되며, 마디4-5는  $vii^{\circ}/V - I - V$ 의 화성으로 끝난다. 부분 a의 시작인 마디6은 온쉼표 위에 늘임표가 있다. 전주와 부분 a의 반주를 비교해보면, 전주에서는 으뜸음인 D음을 오른손의 상성부와 왼손의 상성부에서 반복한다. 그러나 부분 a에서는 오른손의 내성은 으뜸음인 D음을 반복하고, 왼손의 상성부는 딸림음인 A음을 반복한다. 마디7-9의 가사는 “Es de vidrio la mujer(여자는 유리 같지)”이다. 노래와 반주에서 피아노의 썸여림과 스타카토를 사용한 것은 잘 깨지기에 조심스러운 “Vidrio(유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보 2-1] 〈충고〉 마디1-9

**Tempo di Pavana**

*staccato*  
*p*

*p*  
Es do vi drio la mu

$vii^{\circ}/V$  I V

jer pese haro no de pro bar *pp* Menos  
si se

마디9부터의 부분 b는 노래 선율의 셈여림이 피아니시모이고 부분 a와 대조적인 ‘Legato’를 표현하여 노래한다. 마디10-11의 반주는 포르테와 피아노로 셈여림이 대조되는 것을 표현한다. 마디11-12는 화성이 V<sub>7</sub>/iii에서 F#장조의 I도로 진행한다. F#중심의 마디12-13에서는 멜로디가 오른손 내성에 있고, B<sup>b</sup> 중심의 마디14-15에서는 멜로디가 오른손에서 옥타브로 진행된다. 마디16부터는 D중심으로 진행된다. 중심이 되는 음들이 장3도씩 상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2-2] 〈충고〉 마디9-16

The musical score for 'Chunggo' measures 9-16 is presented in three systems. The first system (measures 9-11) shows the vocal line with lyrics 'bar si se puede o no que brar por que to do po dri a' and piano accompaniment. The second system (measures 12-15) includes the lyric 'ser.' and piano accompaniment with chord markings F# : I and B b. The third system (measures 16-16) shows piano accompaniment with a chord marking D. Performance markings include 'pp Menos' at the start, 'a tempo' above the vocal line, and 'p' in the piano accompaniment.

(2) B부분

B부분은 총 10마디이다. D장조이고 4/4박자이다. B부분은 깨지기 쉬운 것을 깨질 위험이 있는 곳에 놓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마디18-20은 노래선율과 반주가 'Legato'로 같은 음을 연주한다. 마디 18-20의 왼손은 오른손과 노래의 선율을 받아서 E-F#-G-A-B-C#-D-D#-E로 순차적 상행한다. 화성은 ii-vi-V7/V-I-V-vi-IV-V-vii°7/ii으로 진행된다. I도가 아닌 vii°7/ii의 사용은 긴장감을 준다.

[악보 2-3] 〈충고〉 마디18-24

순차적 상행

es más fá cil el que brar se y no es cor du ra po ner se a pe li gro de rom

per se lo que

ii vi V7/V I

I (V) vi IV V vii°7/ii

마디24부터인 부분 a' 는 부분 a의 스타카토와 부분 b의 레가토가 노래 선율에 섞여 있다. 반주도 부분 a와는 달리 노래 선율을 똑같이 연주하지 않는다.

### (3) A' 부분

A' 부분은 총 7마디이다. D장조에서 F#장조로 진행한다. 여자는 유리 같기에 시험해 보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마디26부터의 반주와 노래선율은 한 사람이 노래를 하듯이 멜로디를 주고 받는다. D장조로 시작하여 마디28부터는 F#장조로 진행한다. 부분 d의 마디30-31은 반주의 하성부가 F#-E#-E $\flat$ -D#-D $\flat$ -C#-B#B $\flat$ 으로 반음계 하행한다. 마디30-32의 가사는 “Perque todo podría ser(깨질 수도 있으니까)”이다. 이 부분의 노래와 반주에는 슬러 두 번째 음에 ‘sforzando’와 스타카토가 있고, 마디 32에도 스타카토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유리가 깨지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악보 2-4].

[악보 2-4] <충고> 마디26-32

espres.

se. Que es de vi drio la mu jer, pe ro no se ha de pro

D: V 7/4 VII F#:

*sfz* *sfz*

har por que to do po dri a ser.

반음계

V 7 I

(4) B' 부분

B' 부분은 총 15마디이고, D장조이다. 2/4박자로 시작하여 한마디 후에 4/4박자로 변박된다. 마지막 부분인 a'''에서 빠르기가 'Lento'로 변한다. B' 부분은 이 세상에 다나에가 존재한다면 황금비도 역시 존재한다고 말한다.

부분 c'인 마디33에는 'lunga'라고 적혀있다. 그것은 한 소절을 쉬는 일 또는 길게 쉬는 일을 말한다. 부분 c와 비교해보면, 단음으로 연주하던 왼손이 옥타브로 되어있고, 스타카토가 붙여진 8분음표가 추가되어 연주된다. 마디22의 8분음표의 움직임이 부분 c'의 마디38에서는 4분음표의 하행으로 바뀌었다. 왼손의 마디37-38은 A#-B-B#-C#으로 반음계 상행하며, 마디38의 오른손 내성은 E-D#-D와 A#-A#-G#으로 반음계 하행한다. 마디40에서 'rallentando'로 점점 느려진다.

[악보 2-5] 〈충고〉 마디36-40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36 and 37. The vocal line starts with a fermata on 'do:' in measure 36.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melodic line in the right hand and a bass line in the left hand. A box highlights a passage in the piano part in measure 37 with the marking 'p 반음계'.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s 38, 39, and 40. The vocal line has a fermata on 'tam' in measure 38. The piano accompaniment continues with a 'p' marking and a 'rall.' marking in measure 39.

마디41부터의 간주는 전주와 동일하나 전주에서 피아노였던 썸여림이 피아니시모로 더 작아진다. 마디43에서 빠르기가 'Lento'로 바뀐다. 마디44부터 노래는 F#음을 지속하여 부르는데, 썸여림이 피아노에서 포르테로 점점 커졌다가 'morendo'로 점점 느려지며 약해진다. 마디44에서 반주는 'accelerando'로 점점 빨라지며 연속 부속화음이 상행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노래와 함께 'morendo'를 표현하며 점점 느려지며 작아진다. 피아니시모의 화음으로 조용하게 끝난다.

[악보 2-6] <충고> 마디44-47

제2곡은 제1곡과 동일하게 전주에서 노래 선율을 미리 제시한다. 부분 a의 노래 선율이 A부분의 간주에도 나온다. A'부분의 부분 a''는 한 사람이 노래하듯이 반주와 노래 선율이 멜로디를 주고 받는다. A'부분의 부분 d와 B'부분의 부분 c' 반주에서 반음계 진행을 볼 수 있다.

### 3. 〈엘 툼바 이 레 *El tumba y lé*〉

#### 1)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

제3곡의 가사는 작자미상이다. 곡의 제목 〈엘 툼바 이 레〉에서 ‘툼바 (Tumba)’는 주로 크리스마스 축제 때에 안달루시아에서 추었던 춤이지만 이 글에서는 그런 의미가 없다. 곡에서 반복되는 “El tumba y lé”를 영어 텍스트에서는 tla la la로 번역하였다.

시는 철없는 순진한 어린 소녀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내용이다. 1연에서는 남편이 있다면 매년 2-3명의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2연에서는 황소가 한 마리밖에 없지만 송아지 6마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3연은 황소가 두려운 젊은이들이 빨간 조끼를 벗으라고 이야기 해주는 내용이며, 4연에서 소녀는 마귀가 더 무섭다고 이야기한다. 반복되는 후렴은 곡식을 찼으러 함께 갈 거라고 말한다. 텍스트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Aunque soy chiquilla,	난 어리지만
Si topo un marido	남편이 있다면
Tendré de él cada año	매년 그와 함께 어린아이
Dos o tres chiquillos.	두세 명을 가질 것이야.
Tumba y lé	툼바 이 레
Que me voy contigo,	너와 함께 갈 거야.
Tumba y lé	툼바 이 레
Que luego me iré,	그리고는 갈 거야.
Tumba y lé	툼바 이 레
Para ir al molino,	물레방아로 가기 위해서

Tumba y lé	툼바 이 레
Para ir a moler.	(곡식을) 짙으리 가기 위해서
Aunque yo no tengo	얌전한 황소 한 마리
Más que un buey mansito,	밖에 없지만
Entre él y yo haremos	이 황소로 난
Más que seis novillos.	송아지 여섯 마리를 만들 것이야.
Los mozos temiendo	황소가 나를 들이 받을까봐
Que me embesta un toro,	두려워 젊은이들은 나에게
Dicen que me quite	빨간 조끼를
Mi justillo rojo.	벗으라고 하지.
¡Ah! ¡Ah! ¡Ah! ¡Ah!	아! 아! 아! 아! 아!
Pero aunque se dice que:	하지만 이런 말도 있지.
Tras cuernos, palos,	뿔이나 몽둥이 보다
Yo tan sólo temo	난 마귀를
A los del diablo. Ah! Ah!	더 두려워하지. 아! 아!

제3곡은 총 4연 25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1연 12행, 2연 4행, 3연 5행, 4연 4행으로 되어있다. 곡에서는 1연의 5행-12행이 2연, 3연, 4연의 5행-12행에 똑같이 반복되었고 3연에는 1연의 5-7행을 한 번 더 반복하였다. 1연에서 4연까지 앞부분의 4행씩을 제외하고는 가사를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제3곡은 A부분, A1부분, A2부분, A3부분으로 되어있다. 조성은 F장조이고 빠르기는 ‘Allegretto’이며, 박자는 3/4이다. [표 3]은 곡의 형식에 따른 구분, 조성, 빠르기, 박자, 시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3] 〈엘 톰바 이 레〉 곡의 구성

	구분	마디	조성	빠르기	박자	시의 내용	
A	전주(26)	1-26	F	Allegretto	2/4	남편이 있다면 매년 2-3명의 아이를 가질 것이라 말하는 어린 소녀 곡식을 찢으러 함께 갈 것이라 말한다	
	a(8)	27-34					
	b(9)	34-42					
A1	간주(10)	42-51	D-F			F	황소가 한 마리밖에 없지만 송아지 6마리를 만들 것이라 말한다
	a1(8)	52-59					
	b1(9)	59-67					
A2	간주(10)	67-76	D-F			F	황소가 두려운 젊은이들이 빨간 조끼를 벗으라고 이야기 해준다
	a2(8)	77-84					
	b2(9)	84-92					
	간주(5)	92-96					
	b3(7)	96-102					
A3	간주(2)	103-104	F-A-F				소녀는 마귀가 더 무섭다고 말한다
	a3(8)	105-112					
	b4(5)	112-116					
	간주(5)	116-120					
	b5(16)	120-135					

## 2) 곡 분석

### (1) A부분

A부분은 총 42마디로 되어있다. F장조, 2/4박자이며, 빠르기는 ‘Allegretto’이다. A부분은 어린 소녀가 자신에게 남편이 있다면 매년 2-3명의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전주는 높은 음에서 포르테로 시작되며, 왼손 첫 음이 꾸밈음으로 장식되어 있다. 마디1-4의 규칙적인 4마디의 프레이즈가 마디5-8에 반복된다. 마디2와 마디6-7에는 약박에 악센트가 붙어있다. 마디9에서 대조적인 셈여림인 피아노로 바뀌고, 고음으로 연주했던 앞부분과는 달리 양손이 한 옥타브 아래에서 연주한다. 마디9-12가 마디13-16에 똑같이 반복된다. 마디9에서 피아노였던 셈여림이 마디13에서 반복될 때는 피아니시모로 더 작아진다. 마디12는 악센트와 메조포르테의 셈여림으로 강조되며, 마디16은 G $\flat$  음에 늘임표가 있다. 마디17-19에는 첫 음과 마지막 음에 악센트가 있는 리듬이 2번 반복되고, 마디19-21은 마디19의 리듬이 3번 반복된다.

#### [악보 3-1] 〈엘 톱바 이 레〉 마디17-21

2번 반복

3번 반복

마디22부터는 8분음표의 화음이 같은 음을 반복한다. 이것은 스페인 민속 음악에 사용된 북을 두드리는 효과가 난다. 마디 24에서 ‘diminuendo’하여 썸여림이 피아니시모가 된다.

이 곡의 노래 선율에는 2가지 리듬이 계속 반복된다. 그 중의 하나인 부분 a는 마디27부터 시작된다. 썸여림은 포르테이고, ‘rudamente(거칠게, 난폭하게)’의 지시어가 있다. 마디27과 마디29의 악센트와 스타카토를 살려서 노래한다. 마디27-30의 노래가 마디31-34에 반복된다. 반주의 왼손은 스타카토가 붙여진 8분음표가 계속되며, 마디29와 마디33의 오른손에는 순차적으로 상행하는 10연음이 있다.

[악보 3-2] 〈엘 톱바 이 레〉 마디27-30

*f* *rudamente*

Aunque soy chiquillito, pero un maridito

2가지 리듬 중 또 다른 하나인 부분 b는 마디34부터 시작된다. 노래의 셈여림은 부분 a와 대조적인 피아노이다. 마디34-38의 노래 선율은 8분음표와 16분음표로 이루어져 있고, 마디38-42에 한 번 더 반복된다. 노래는 크레센도와 데크레센도를 표현한다. 반주의 왼손에서는 두음 슬러에 의한 당김음이 보인다. 반복되는 두음 슬러의 첫 음은 F음이 계속되고, 마디 34-36의 슬러의 두 번째 음은 G<sup>b</sup>-G-B<sup>b</sup>-A로 움직인다. 마디35부터 슬러의 두 음은 F-A, F-C, F-D, F-E, F-F로 음정이 점점 더 벌어진다. 한 음씩 연주했던 왼손 반주가 마디38부터는 두 음을 동시에 화음으로 연주한다. 왼손의 하성부는 F음이 계속되고, 마디38-40의 왼손 상성부에는 마디34-36에서 보인 G<sup>b</sup>-G-B<sup>b</sup>-A가 똑같이 나온다. 마디40-41에서 왼손의 상성부는 G<sup>b</sup>-F-E<sup>b</sup>로 반음계 하행한다.

[악보 3-3] 〈엘 톰바 이 레〉 마디34-41

qui llos, Tumba y lé que me voy con ti go, tum ba y lé que lue go me i ré, tum ba y

lé pa ra ir al mo lí no tum ba y lé pa ra ir a mo ler.

반음계

(2) A1부분

A1부분은 총 26마디로 되어있다. 간주가 D장조로 시작되고 조성이 바뀌어 F장조로 계속된다. 소녀는 황소가 한 마리 밖에 없지만 송아지 6마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마디42부터의 간주는 셈여림이 포르테이고 조성은 D장조이다. 마디44부터의 간주에서 부분 a의 노래 선율이 오른손 상성부에 나오며, 마디51에서 다시 F장조로 돌아간다. 마디42, 마디44, 마디48, 마디50에는 약박에 악센트가 있다.

[악보 3-4] 〈엘 톨바 이 레〉 마디42-51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of piano accompaniment. The first system, measures 42-48, is in D major (D: V) and features a piano introduction with accents on weak beats. The second system, measures 49-51, changes to F major (F: V7 I) and includes a vocal melody in the right hand. Dynamics include f, sfz, and accents.

마디52부터의 부분 a1에는 부분 a의 노래 선율이 반복된다. 반주의 셈여림은 앞부분의 간주와 대조적인 피아노이다. 마디52-53의 반주는 노래 선율과 같은 음으로 되어있다. 마디55에 꾸밈음이 붙은 F음은 한 옥타브 위에서 연주하며 그 음에 ‘sforzando’를 표현하여 특히 세게 연주한다.

마디59부터의 부분 b1은 노래 선율에 슬러에 의한 당김음이 나온다. 반주는 셋잇단음표와 스타카토가 붙은 16분음표가 순차적으로 상행한다. 마디 63부터의 반주는 마디59부터와 동일하나 오른손만 한 옥타브 위로 올라간다. 마디59-61과 마디63-65에는 오른손 셋잇단음표의 첫 음과 노래 선율이 같은 음을 연주한다.

[악보 3-5] 〈엘 톰바 이 레〉 마디59-64

같은 음      다음 슬러

vi llos. Tum ba y lé que me voy con ti go, tum ba y

lé que lue go me i ré. Tum ba y lé pa ra ir al mo

(3) A2부분

A2부분은 총 36마디로 되어있다. A1부분과 마찬가지로 D장조로 시작하여 F장조로 계속된다. A2부분은 황소가 두려운 젊은이들이 소녀에게 빨간 조끼를 벗으라고 이야기 해주는 내용이다.

마디67부터의 간주는 마디 42의 간주와 같은 D장조로 시작한다. 약박에 악센트가 붙은 A1부분의 간주와는 달리, A2부분의 간주에는 강박에 악센트가 있다.

부분 a2인 마디77부터는 반주의 오른손이 노래 선율보다 한 옥타브 위에서 연주된다. 마디77의 오른손 첫 음에는 악센트가 있고 셈여림은 점점 작아진다. 마디77-80의 오른손은 2도 올라갔다가 4개의 음이 순차적으로 하행하는 것이 6번 반복된다. 마디80의 오른손 반주에는 꾸밈음이 있다. 스페인 민요 대부분은 포레이즈 끝에 간단한 꾸밈음을 넣어 장식한다. 세 개나 네 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짧고 간단한 앞꾸밈음들은 빠르게 진행되어 이국적인 분위기를 강조한다.<sup>15)</sup> 마디77-80의 왼손 상성부는 F음을 시작으로 반음계 하행한다.

[악보 3-6] 〈엘 톱바 이 레〉 마디77-80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77-80 of 'El Tombari' consists of three systems. The first system is the vocal line in a treble clef with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flat). The lyrics are 'Los mo zos te mien do que me em bis ta un to ro'. The second system shows the piano accompaniment. The right hand is in a treble clef, starting with an 8va marking and playing a chromatic descending line. The left hand is in a bass clef, playing a chromatic descending line starting on F. Dynamics include 'fp' (fortissimo piano) and 'sfz' (sforzando). The word '반음계' (chromatic) is written below the left hand. The word '꾸밈음' (ornament) is written above the right hand.

15) 배지숙, “오브라도르스의 《7개의 고전적인 스페인 노래》에 나타난 플라멩코 특징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8.

마디84부터의 부분 b2는 반주의 셈여림이 부분 b와 동일한 피아니시모이다. 셋잇단음표의 반주였던 부분 b1과는 달리, 부분 b2에서는 16분음표로 된 4개의 음들이 상행한다. 마디88부터의 반주는 오른손과 왼손이 한 옥타브 위에서 연주하며, 셈여림이 점점 커져서 마디92에는 포르테가 된다. 마디92부터의 간주에서는 셈여림이 포르티시모이고, 부분 b의 노래 선율을 볼 수 있다. 마디93과 마디95의 왼손의 F음은 ‘sforzatisimo’를 표현하여 보다 더 강조한다.

부분 b3의 마디96부터는 마디92부터의 간주와 동일한 반주가 한 옥타브 위에서 연주된다. 노래 선율과 같은 음이 오른손의 상성부에서 보인다. 마디97부터 왼손의 상성부가 E-F-F#-G-G#-A로 반음계 상행한다. 마디 98-100의 노래는 가사 “Tumba y lé”를 2번 반복하면서 반음계로 상행하며, 뒤이어 감탄사 ¡Ah!가 8번 나온다. 마디 99부터 셈여림이 점점 커지고 마디102에서 포르테가 된다. 왼손의 화음이 저음에서 2번 반복되며 작아진다.

[악보 3-7] 〈엘 툼바 이 레〉 마디96-100

반음계

*cresc.*

¡Ah! ¡Ah! ¡Ah!

Tum ba y lé que me voy con ti go, tum ba y lé, tum ba y lé.

#### (4) A3부분

A3부분은 총 33마디로 되어있다. F장조로 계속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A장조로 진행되고 F장조로 끝난다. A3부분에서 소녀는 빨이나 몽둥이 보다 마귀가 더 무섭다고 말한다.

간주인 마디103에는 ‘rudamente(거칠게, 난폭하게)’의 지시어가 있다. 반주의 왼손은 8분음표 화음이 계속되고, 마디104-106의 오른손에는 꾸밈음이 붙은 F음에 악센트가 있다. 마디107-108의 G $\flat$  음과 G음은 ‘sforzando’가 있다. 이것은 “Pero aunque se dice que”의 가사처럼, 소녀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을 표현한다. 노래는 마디106-107의 슬러를 살려서 노래한다. 부분 a의 노래 선율은 마디107처럼 계속하여 E $\flat$ -D $\flat$ -C-B $\flat$ 로 반복하였으나, 마디111은 D $\flat$ 이 D $\sharp$ 으로 되어있다. 또한 마디109부터는 왼손이 한 옥타브 아래에서 연주하고, 마디109-112는 갑작스럽게 작아진 셈여림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의 가사는 “Yo tan sólo temo A los del diablo(난 마귀를 더 두려워하지)”이다. 점점 커진 셈여림은 악마를 뜻하는 “diablo”에서 가장 커지며, E $\flat$ -D $\sharp$ 로 변한 반음의 음정은 두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악보 3-8].

[악보 3-8] 〈엘 톰바 이 레〉 마디103-112

Pe ro aun que se di ce que: tras cuer nos, pa los,

yo tan so lo te mo a los del di a blo; Tum ba y

*rudamente*

꾸밈음

*sfz*

*pp subito*

*cresc.*

*sfz pp subito*

*8va*

부분 b4인 마디112에서 다시 갑작스러운 셈여림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오른손의 반주는 부분 b3에 비해 단순해진다. 마디116부터의 간주는 마디92부터의 간주와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오른손은 쉼표 대신 음표를 박자대로 채워서 사용하였고, 왼손은 같은 화성 안에서 한 음씩 빼거나 추가하였다. 마디120부터의 부분 b5는 간주와 대조적인 셈여림인 피아니시시모로 시작된다. 이 부분의 노래와 반주는 부분 b2와 동일하다. 마디124에서 노래가 “tumba y lé”와 감탄사를 반복하며 길어진다.

마디128의 반주는 썸여림이 포르테로 커지고, A장조로 진행된다. 마디 129의 반주에서 부분 a의 노래 선율을 한 번 더 연주되며, 마디131의 반주에는 ‘deciso’의 지시어가 있다. 마디133에서 F장조로 다시 바뀌면서 포르티시모로 강하게 끝이 난다. 마디135에 나오는 ‘grito’는 외침을 뜻한다.

제3곡은 규칙적인 4마디의 프레이즈로 되어 있다. 제3곡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2가지 리듬은 부분 a와 부분 b의 노래 선율이다. 부분 a1-a3는 부분 a의 노래 선율을 반복하지만, 가사와 반주는 반복되지 않는다. 부분 b1-b5는 노래 선율과 노래 가사가 반복된다. 부분별로 반주가 달라지지만, 부분 b5의 반주는 부분 b2와 동일하다. A부분의 부분 b에서 왼손 반주는 슬리에 의한 당김음이 사용되었다. A1부분의 간주는 부분 a의 노래 선율을 연주한다. 전주, A1부분의 부분 a1, A2부분의 부분 a2, A3부분에서 꾸밈음을 사용하였다. A2부분의 부분 a2에서 왼손 반주는 반음계 하행하며, 부분 b3은 노래와 반주가 함께 반음계로 상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4. 〈아가씨와 대머리들 *La moza y los calvos*〉

##### 1)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

제4곡의 악보 첫머리에 케베도(Francisco Quevedo, 1580-1645)의 Romance라고 적혀있다. 이 시의 작가인 케베도는 스페인이 자랑하는 풍자 시인이다. 극단적 기교를 중히 여기는 과식주의(gongorismo)와 케베도의 만화같은 풍자는 17세기 스페인 문학의 바로크 풍을 대표한다.<sup>16)</sup>

시에서는 엄마들에게 딸을 대머리에게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남자들은 대머리가 되어간다는 풍자적인 내용이다. 1연은 엄마들에게 딸을 대머리에게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며, 2연에서는 대머리에게 쫓겨 온 한 아가씨가 남자들은 대머리가 되어간다고 말한다. 3연은 머리를 깎아주고 싶지만 이미 남자들은 대머리가 되어가고 그들은 가발을 쓰기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텍스트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Madres las que tenéis hijas

Así Dios os dé ventura.

Que no se las deis a calvos

Si no a gente de pelusa.

딸이 있는 엄마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딸들을 대머리들에게 주지 말고

털이 있는 사람들에게 줘야 한다.

---

16) 마상영, 『스페인 문화예술의 산책』, (서울: 도서출판 청동거울, 2006), p.166.

En esto huyendo de un calvo  
 Entró una moza de Asturias,  
 De las que dicen que olvidan  
 Los cogotes en la cuna  
 Y a voces desesperadas, ¡ay! ¡ay!  
 Maldiciendo su ventura ¡ay! ¡ay!  
 Dijo de aquesta manera  
 Cariharta y cejijunta ¡ay!  
 Tra la la,  
 Calvos van los hombres madre,  
 Calvos van, más ellos cabellarán,  
 Tra la la. ¡ay!

Si a los hombres los queremos  
 Para pelarlas acá  
 Y pelados viene ya  
 Si no hay quepelar,  
 ¿Qué haremos, eh? ¿Eh?  
 Antes morir que encalvemos, ¡ay! ¡ay!  
 Alerta hijas de Adán,  
 Ah, ah, tra, la, la, ja, ja  
 Calvos van, más ellos cabellarán,

대머리에게 쫓겨서  
 한 아가씨가 아스투리아에서 왔지.  
 태어났을 때부터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아가씨였지.  
 그리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아이고! 아이고! 자신의 행운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다 포기한 표정과 찌푸린 눈으로  
 트라 라 라.  
 어머니, 남자들은 대머리가 되어가요.  
 대머리가 되어 가면서 가발을 쓰기 시작해요.  
 트라 라 라. 아이고!

남자들을 좋아하는데  
 여기서 머리를 깎아 주기 위해서  
 이미 대머리가 되어서 와서  
 깎을 머리가 없으면  
 우린 뭘 하지? 어?  
 우리가 대머리가 되기 전에 죽겠지. 아이고! 아이고!  
 아담의 딸들이여 조심하라,  
 아, 아, 트라, 라, 라, 라, 라  
 대머리가 되어 가면서 가발을 쓰기 시작해요.

제4곡은 총 3연 25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1연 4행, 2연 12행, 3연 9행으로 되어있다. 곡에서 가사를 2번씩 반복하여 사용한 부분을 볼 수 있다. 2연 9행의 “Tra la la”가 반복되며 3연 3행의 “Y pelados viene ya(이미 대머리가 되어서 와서)”가 반복된다. 3연 7행의 “Alerta hijas de Adán(아

담의 딸들이여 조심하라)”가 반복된다. 3연의 마지막 부분에는 2연 10행의 “Calvos van los hombres madre(어머니, 남자들은 대머리가 되어가요)”가 반복되었다.

제4곡은 A부분, B부분, B' 부분으로 되어있다. 곡은 ‘Tempo di Marcia’의 빠르기와 e단조로 시작되며, ‘Tempo de Jácara’로 빠르기가 변화되면서 조성도 E장조로 바뀐다. 또한 조성과 프리지안 선법이 조화를 이룬다. 4/4 박자로 시작되나 변박이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4]는 곡의 형식에 따른 구분, 조성, 빠르기, 박자, 시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4] 〈아가씨와 대머리들〉 곡의 구성

	구분	마디	조성	빠르기	박자	시의 내용
A	전주(6)	1-6	e	Tempo di Marcia	4/4 2/4	엄마들에게 딸을 대머리에게 주지 말라고 말한다
	a(6)	7-12			4/4	
	간주(5)	12-16				
B	간주(4)	17-20	E	Tempo de Jácara	3/8	대머리에게 쫓겨온 한 아가씨가 남자들은 대머리가 되어간다고 말하고 대머리들은 가발을 쓰기 시작한다
	b(8)	21-28			3/4 6/8 (×2)	
	c(4)	29-32			3/8 3/4 6/8 (×2)	
	d(8)	33-40			3/8	
	d' (7)	41-47				
	e(7)	47-53				
	간주(8)	53-60	E		3/8	
	f(24)	61-84	프리지안 선법 73-84			

			선법 - C				
	간주(4)	85-88	C				
	e' (13)	89-101					
B'	b' (8)	102-109	E		3/4 6/8 (×2)	머리를 깎아주고 싶지만 이미 남자들은 대머리가 되어가고 그들은 가발을 쓰기 시작한다	
	c' (4)	110-113					
	d'' (9)	113-121	c#	Lento	6/8 3/8 3/4 3/8 3/4		
	d''' (7)	122-128					
	e'' (16)	128-143	E	Tempo de Jácara	3/8		
	간주(3)	143-145					
	간주(3)	146-148					
	f' (31)	149-179					3/8 3/4 3/8

## 2) 곡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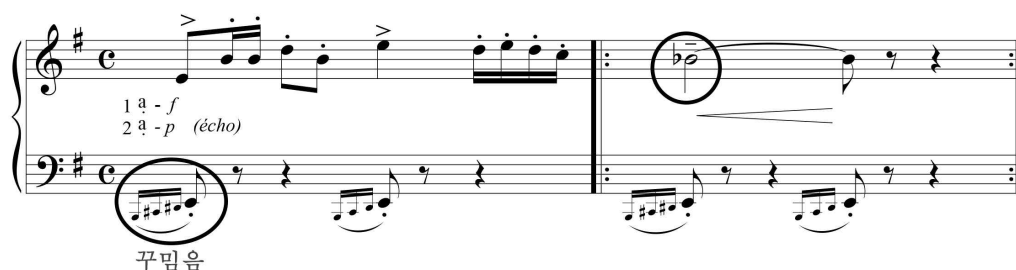
### (1) A부분

A부분은 총 16마디로 되어있다. e단조이며, 빠르기는 ‘Tempo di Marcia (행진곡의 빠르기로)’이다. 4/4박자로 시작하여 2/4박자로 변박되었다가 노래의 시작과 함께 4/4박자로 돌아간다. A부분은 엄마들에게 딸을 대머리에게 주지 말라고 말한다.

악보의 마디1에 ‘comme un tambour lointain’이라고 적혀있다.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인 듯한 전주의 왼손이 피아니시모로 시작된다. 마디1-5의

왼손은 꾸밈음이 장식된 E음이 10번 나온다. 마디2-3의 오른손은 포르테의 셈여림으로 악센트와 스타카토를 표현하며, 도돌이표를 반복할 때는 셈여림이 대조되어 피아노로 연주한다. 마디3의 오른손에는 B $\flat$ 음이 사용되었다. 이 음으로 인해 조성의 느낌이 깨지고 이 곡에서 선법이 사용되는 것을 암시한다.

[악보 4-1]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2-3



마디4-5의 오른손에는 ‘sforzando’가 붙은 E $\flat$ 음과 F음이 D음과 E $\flat$ 음으로 반음 하행하는 두음 슬러가 3번 반복된다. 마디6에서 2/4박자로 변박되었다가 마디7에서 다시 4/4박자로 바뀐다. 마디5-13의 왼손은 3음이 생략된 8분음표의 화음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분 a인 마디7에는 ‘ad libitum(연주자의 임의대로)’으로 연주하라고 적혀 있다. 마디7-9마디의 노래 선율은 조성감이 모호해지며, 자연단음계가 아닌 선법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 마디7-12는 도돌이표를 반복하여 2번 노래한다. 선율은 똑같이 반복되나 가사는 다르다. 반복했을 때는 마디12의 작게 그려진 음표도 연주한다. 마디12-13의 간주는 전주 마디2-3의 오른손과 같은 음으로 되어있다. 전주에는 4개의 16분음표가 스타카토로 되어있었는데, 간주는 레가토로 진행된다. 마디13-14의 왼손에는 마디1과 동일한 꾸밈음이 붙은 E음이 2번 나온다. 마디14의 오른손은 첫 음에 악센트가 붙은 D-E-D-C-B $\flat$ 이 2번 반복되고, 왼손에도 두음 슬러가 2번 반복된다. 마디15

의 오른손에서 D-E-D-C-B $\flat$ 이 한 번 더 반복되고 오른손과 왼손이 상행 진행하며 셈여림이 커진다. 마디16에서 ‘sforzando’와 악센트가 붙은 화음이 나오며 세 번째 박자에서 동일한 화음을 한 옥타브 아래에서 연주한다. 네 번째 박자의 4분쉼표에는 늘임표가 있다.

## (2) B부분

B부분은 총 85마디로 되어있고, 빠르기는 ‘Tempo de Jácara’이다. E장조로 시작하여 프리지안 선법이 사용되고, C장조로 바뀐다. 3/8박자로 시작하여 부분 c-d에는 변박이 많이 사용된다. 부분 d' 부터 다시 3/8박자로 진행한다. B부분은 한 아가씨가 남자들은 대머리가 되어간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은 대머리가 되면서 가발을 쓰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마디17은 악센트가 붙은 포르테의 E화음으로 시작된다. 마디18은 오른손이 G $\sharp$ -F $\times$ -G $\sharp$ , 오른손의 내성이 E-D $\sharp$ -E, 왼손이 B-A $\sharp$ -B로 반음 내려갔다가 다시 원래의 음으로 반음 올라온다. 마디18-20은 마디18이 똑같이 3번 반복된다.

### [악보 4-2]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17-20

Tempo de Jácara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taves. The right staff is in treble clef and the left staff is in bass clef. The key signature has three sharps (F#, C#, G#) and the time signature is 3/8. The piece starts with a forte (f) dynamic. The right hand begins with a chord of G#-F-x-G#, followed by a series of chords and single notes. The left hand plays a rhythmic accompaniment with a bass line that descends from B to A# and then ascends back to B. There are accents and sforzando markings throughout the piece.

부분 b는 4마디의 프레이즈가 2번 나온다. 마디21과 마디25의 노래 선율과 반주에는 간주의 마디18에서 보인 ♩ ♪ 리듬이 사용되었다. 부분 b의 반주는 마디21의 첫 음에 악센트가 있고, 마디22의 두 번째 박은 짧은 앞꾸밈음이 사용되었다. 마디23은 노래 선율에 따라서 세 번째 박에 악센트가 있고 마디24에는 두 번째 박에 악센트가 있다.

부분 c인 마디29부터는 3/4박자와 6/8박자가 교대로 사용된다. 이처럼 3/4박자와 6/8박자가 교대하여 헤미올라 리듬을 사용하는 것이 스페인 리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sup>17)</sup> 또한 마디마다 변박이 되는 또 다른 이유를 가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디29-32의 가사는 “De las que dicen que olvidan Los cogotes en la cuna(태어났을 때부터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아가씨였지)”이다. 기억이 오락가락했다는 가사의 내용을 변박을 통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보 4-3]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29-32

17) 배지숙, “오브라도르스의 《7개의 고전적인 스페인 노래》에 나타난 플라멩코 특징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2.

마디33부터는 규칙적인 4마디의 프레이즈가 2번 반복된다. 부분 d는 3/8박자로 시작되어 3/4박자로 변박되었다가 6/8박자로 바뀐다. 마디33-34와 마디37-38의 노래 선율과 반주에서 ♩ ♩ ♩ 리듬이 나온다. 부분 d의 노래 선율과 반주는 같은 음을 연주하며, 반주는 짧은 앞꾸밈음으로 장식한 것을 볼 수 있다. 마디35와 마디39가 3/4박자로 바뀌고 8분음표 위에 테누토가 사용된 것은 가사 “desesperadas”의 절망적인 상황을 음악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보 4-4]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33-36

*con fantasia*

Ya vo ces de ses pe ra das (ah!) (ah!)

꾸밈음

부분 d'는 마디33-34의 노래 선율과 같은 리듬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변박이 되지 않고, 규칙적인 4마디로 진행되지 않는다. 마디43-44의 노래 선율과 반주에는 슬러에 의한 당김음과 음표 길이에 의한 당김음을 살려서 표현한다. 마디45는 노래 선율과 반주가 함께 스타카토로 연주되며 마디46은 음표 길이에 의한 당김음이 사용되었다. 마디46-47은 노래 선율과 반주가 같은 음을 연주한다.

마디47의 “iah!”가 영어 텍스트에서는 앞 행에 있었으나, 필자는 “iah!”를 부분 e의 시작으로 보았다. 부분 e는 노래 선율이 스타카토가 붙은 16분음표로 진행되기에 16분음표로 두 번 반복되는 “iah!”도 부분 e로 볼 수 있다. 또한 뒷부분에 부분 e와 똑같이 시작되는 부분 e"도 가사 “ah”부터를 시작으로 본다. 마디47-48의 화성은 E장조의 I 도이고, 마디49-50은  $b$  II, 마디51-52는 E장조의  $V_7$ 으로 진행된다.

[악보 4-5]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47-52

jun ta: jah! jah! Tra la la, la, la, la, Tra la la, la, la, la, la, 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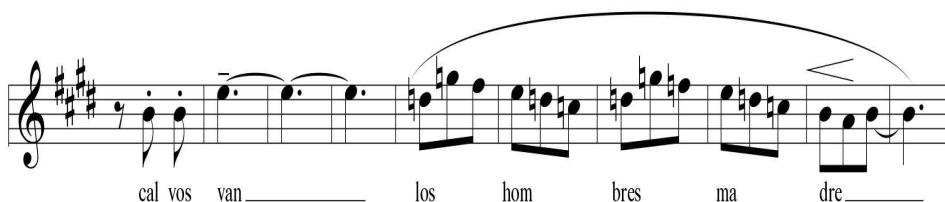
E : I                       $b$  II                      V 7

마디53-84의 왼손은 E-B음으로 된 두음 슬러가 계속 반복된다. 슬러의 두 번째 음인 B음에는 악센트가 붙어있다. 마디54부터 오른손은 4마디씩 오스티나토로 움직인다. 마디61부터 노래에서 본격적으로 프리지안 선법이 사용되었다.

[악보 4-6] 프리지안 선법



[악보 4-7]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61-70<sup>18)</sup>



마디73부터는 선법에서 조성으로 바뀌며, 마디85에서 C장조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분 f의 노래 선율의 특징은 마디62-64처럼 한 음을 지속하는 부분이 있고, 마디65-69에서처럼 멜리스마적인 선율을 볼 수 있다.

18) 마디 65의 노래 선율 F음은 악보의 잘못된 부분이다. F음이 아닌 마디 67과 동일한 F<sup>b</sup>음이 맞다.

마디77은 노래 선율과 반주의 셋여림이 피아노로 사용되었다. 마디77-78의 노래 선율이 F#-B-A-G#-F#-E로 움직이며 마디79-80에서는 가사는 다르지만, 노래 선율이 같은 음으로 똑같이 반복된다. 그러나 마디81-82는 G#음이 G#음으로 바뀌어 반복된다. 마디77-79의 오른손은 반음이 올라가는 두음 슬러가 3번 반복되며, 마디80의 두음 슬러는 노래 선율과 같은 음을 연주한다. 또한 마디81-84에서도 노래 선율과 같은 음을 연주한다.

[악보 4-8]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77-82

The musical score for measures 77-82 of 'The Girl and the Bald Men' is presented in two systems. The top system shows the vocal line in G major (one sharp) and 3/4 time. The lyrics are 'mas c llos ca be lla rán'. The bottom system shows the piano accompaniment, with a piano (p) dynamic marking. The piano part features a triplet of eighth notes in the right hand and a steady eighth-note bass line in the left hand.

마디86부터 왼손의 두음 슬러가 C $\sharp$ -G $\sharp$ 음으로 바뀌어 계속 반복된다. 5도의 음정으로 반복되던 두음 슬러는 마디95부터 음정이 점점 더 벌어진다. 마디95는 C $\sharp$ -A, 마디96은 C $\sharp$ -B $\flat$ , 마디97은 C $\sharp$ -B $\sharp$ , 마디98은 C $\sharp$ -C $\sharp$ 가 된다. 마디98부터는 슬러의 두 번째 음이 C $\sharp$ -B-A $\sharp$ 으로 하행하며, 오른손의 내성에서도 똑같이 C $\sharp$ -B-A $\sharp$ 으로 반음계 하행한다. 마디99의 'accelerando'와 마디101의 'rallentando'를 표현하여 연주한다. 마디96-97의 노래는 셋잇단음표를 이용하여 선율을 꾸며준다.

[악보 4-9]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93-101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measures 93-101) includes a vocal line with lyrics "la, la, la, la, la, la, la, ¡Ah!" and a piano accompaniment. The piano part features a triplet in the right hand and a descending chromatic line in the left hand, with the word "반음계" (chromatic) written below. The second system (measures 102-103) shows the continuation of the piano accompaniment, marked with "rall." (rallentando).

### (3) B' 부분

B' 부분은 총 78마디로 되어있다. E장조로 시작하여 c# 단조로 진행되다가 다시 E장조로 돌아온다. 빠르기는 'Tempo de Jácara'로 시작하여 'Lento'로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진다. 또한 3/8박자로 시작하여 변박이 많다. B' 부분은 머리를 깎아주고 싶지만 이미 남자들은 대머리가 되어가고, 그들은 가발을 쓰기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마디102부터는 부분 b의 노래 선율과 같으나 부분 b'의 마디103에는 노래 선율의 A음이 꾸밈음으로 장식되어있다. 부분 b의 마디23-24에는 왼손의 반주가 으뜸음인 E음으로 되어있고, 부분 b'의 마디104-105에는 왼손의 반주가 딸림음인 B음으로 되어있다. 또한 부분 b의 마디27-28에서 오른손의 반주는 I<sub>7</sub>의 화음이 전위되어 각각 다른 높이에서 연주되었고, 부분 b'인 마디108-109의 오른손 화음이 3번 똑같이 반복된다.

부분 d, 부분 d'와 비교했을 때 부분 d''는 빠르기가 'Lento'로 바뀌었다. 3/4박자로 변박되기는 하나, 부분 d와는 달리 6/8박자로는 변박되지 않는다. 부분 d와 부분 d'의 반주는 노래 선율과 같은 음을 연주했지만 부분 d''의 반주는 한 마디에 하나의 화음만으로 이루어져 단순해졌다. 부분 d''에서 빠르기가 변한 이유를 가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디113-121의 가사는 "Si no hay quepelar. ¿Qué haremos, eh? ¿Eh? Antes morir que encalvemos, ay! ay!(깎을 머리가 없으면 우린 뭘 하지? 어? 우리가 대머리가 되기 전에 죽겠지. 아이고! 아이고!)"이다. 슬피하는 가사의 내용에 따라 빠르기가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마디117-118의 반주는 오른손이 한 옥타브 올라가서 8°의 옥타브로 상행하고 왼손도 같은 음을 연주하며 A#-B-C#-D#으로 상행한다. 마디118에서 노래의 첫 음과 반주는 동일한 D#음을 연주한다[악보 4-10].

[악보 4-10]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114-118

마디121-122에서도 반주가 B#-C#-D#-G#으로 상행하며, 마디122에서 노래와 반주는 같은 G#음을 연주한다.

부분 d<sup>'''</sup>는 부분 d<sup>''</sup>와 동일한 빠르기인 ‘Lento’로 시작한다. 마디124-125의 왼손이 B#-C#-E-F#-G#으로 상행하고, 가사 “Alerta hija s de Adán(아담의 딸들이여 조심하라)”가 2번 반복되면서 빠르기가 점차 빨라진다. 부분 d<sup>'</sup>와 동일하게 변박이 되지 않고 3/8박자로 계속된다. 부분 d<sup>'</sup>와 비교해볼 때 ♩ ♩ 리듬이 마디123에서 ♩ ♩ 리듬으로 바뀌었고 슬러에 의한 당김음도 없어졌다. 반주의 마디122-123은 부분 d<sup>''</sup>의 반주처럼 한 마디에 하나의 화음만으로 되어있고, 마디124-128의 반주는 부분 d<sup>'</sup>의 반주와 동일하다.

부분 e<sup>''</sup>는 빠르기가 변화된다. 악보에서 빠르기의 변화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부분 e, 부분 e<sup>'</sup>와 동일하게 부분 e<sup>''</sup>의 빠르기도 ‘Tempo de Jácara’로 진행된다. 부분 e와 비교했을 때 부분 e<sup>''</sup>의 마디131은 노래 선율의 B음에 꾸밈음이 없고 마디133의 A음에 꾸밈음이 장식되어있다. 마디128-129는 E장조의 I, 마디130-131은 b II, 마디132-133은 V<sub>7</sub>으로 진행된다.

마디134-136은 E장조, 마디137-139는 D장조의 I, 마디140-142는 V<sub>7</sub>/bⅢ로 화성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마디143는 E장조의 V<sub>7</sub>의 화성이 마디146에서 I 도로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4-11]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134-146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four systems. The first system shows the vocal line starting with 'ah,' and 'iAh!' (with a triplet), and the piano accompaniment with a triplet and sixteenth-note runs. The second system continues the vocal line with 'iAh,' and 'iAh!' (with a triplet), and the piano accompaniment with sixteenth-note runs. The third system shows the piano accompaniment with sixteenth-note runs and a triplet. The fourth system shows the piano accompaniment with sixteenth-note runs and a triplet, ending with a chord marked 'I'.

Chord progressions indicated in the score are: E: I, D: I, V 7/b III, E: V 7, and I.

마디146부터의 간주는 마디53부터의 간주와 비교해볼 때 양손이 한 옥타브 위에서 연주된다. 왼손의 반주는 간주와 동일하며, 오른손은 4마디씩 똑같이 2번 반복된다. 또한 앞의 간주와 비교해볼 때 가사는 동일하나 마디153부터 노래 선율이 바뀌고, 마디155부터의 반주는 펼침화음으로 진행된다.

마디155부터 노래 선율과 반주의 화성이 4마디마다 변한다. 마디155-158은 D장3화음, 마디159-162는 C장3화음, 마디163-168은 B장3화음으로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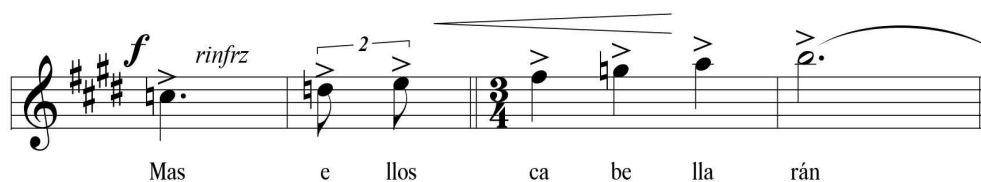
[악보 4-12]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155-166

마디169에 ‘rinforzando(점점 강하게)’의 지시어가 있다. 노래가 고음으로 상행하며 점점 커질 때 반주는 반진행하며 폭을 넓힌다. 노래 선율은 리디안 선법으로 되어 있다.

[악보 4-13] 리디안 선법



[악보 4-14] 〈아가씨와 대머리들〉 마디169-172



마디173에는 ‘comme des clochettes’라고 적혀있다. 작은 종이나 방울소리인 듯 연주한다. 마디173-177의 오른손은 한 옥타브 위에서 연주한다. 마디175부터의 반주도 조성이 아닌 선법으로 되어있다. 마디178은 셈여림이 대조되어 포르테가 된다. 마디179는 포르테시모의 E화음에 ‘seco(마른, 건조된)’라고 적혀있다. 마지막 화음을 꾸밈없이 건조하게 연주한다. V-I의 정격종지가 아닌, vii<sup>o</sup>-I의 불완전 정격종지로 곡이 끝난다.

제4곡의 전주는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인 듯한 왼손의 꾸밈음으로 시작된다. A부분의 부분 a는 왼손에는 8분음표의 화음이 계속되는데, 이것 또한 북치는 효과가 난다. B부분의 간주와 부분 b에서는 노래 선율과 반주에 ♪ 리듬이 사용되었다. 부분 c는 3/4박자와 6/8박자가 교대로 사용되는

헤미올라를 볼 수 있다. 또한 부분 d와 부분 d'에서도 ♩ 리듬이 사용되었다. 마디53부터의 간주와 부분 f, 부분 e', 마디146부터의 간주, 부분 f'에서 왼손 반주는 두음 슬러가 계속된다.

## 5.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Confiado jilguerillo*〉

### 1) 시의 내용과 곡의 구성

제5곡의 악보 첫머리에 리테레스(Antonio de Lliteres, 1673-1747)의 아키스와 갈라테이아(Acis Galatea)라고 적혀있다. 스페인 작곡가인 리테레스는 사르수엘라(Zarzuela)를 집중적으로 쓴 작곡가이다. 사르수엘라는 이탈리아의 오페라와 유사한, 스페인의 일종의 민족적 서정극인 경 희가극을 말하며 그것은 노래, 춤, 그리고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sup>19)</sup> 카니사레스(José Canizares, 1676-1750)의 대본에 의한 사르수엘라 《아시스와 갈라테이아 *Acis y Galatea*》는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며<sup>20)</sup>, 제5곡은 그 중 갈라테이아의 아리아이다.

이 곡의 내용은 바람둥이 같은 남자를 방울새에 비유하며 당신의 웃음과 즐거움이 다른 사람에게겐 상처가 된다고 말한다. 텍스트와 해석은 다음과 같다.

Confiado jilguerillo,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야.
Mira como importuna	먼저 네 상태가
De tu estado primero,	어떤지 봐이지.
Te derribó el amor y la fortuna,	사랑과 행운이 널 쓰러뜨렸고
Y el viento que tan ufano presumiste	그렇게도 자만하던 바람을
Aún no le hallaste cuando le perdiste.	잃어버린 후부터 아직도 찾지 못했잖아.

19) 마상영, 『스페인 문화예술의 산책』, (서울: 도서출판 청동거울, 2006), p.242.

20) “Antoni Lliteres Carrió”. [https://en.wikipedia.org/wiki/Antoni\\_Lliteres\\_Carri%C3%B3](https://en.wikipedia.org/wiki/Antoni_Lliteres_Carri%C3%B3) [2016년 10월 19일 검색].

Si de rama en rama,	나뭇가지 사이와
Si de flor en flor,	이 꽃 저 꽃으로
Ibas saltando,	멈추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서
Bullendo y cantando,	뛰어 다녔었지.
Dichoso quien ama	사랑의 기다림을
Las ansias de amor!	사랑하는 자는 행복하지!
Ibas saltando,	멈추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서
Bullendo, cantando, ¡Ay!	뛰어 다녔었지. 아이고!
Dichoso quien ama	사랑의 기다림을
Las ansias de amor!	사랑하는 자는 행복하지!
Advierte que apriesa	웃음이 눈물로
Es llanto la risa	그리고 더 큰 기쁨으로
Y el gusto mayor. ¡Ay, ay! (¡Ay!)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알았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5곡은 총 2연 19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1연 6행, 2연 13행으로 되어있다. 곡에서는 2연의 7행인 “Ibas saltando(멈추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서)”가 반복되며 2연의 7-10행이 반복되고, 12-13행은 두 번 더 반복된다. B' 부분에서도 2연의 가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

제5곡은 A부분, B부분, B' 부분으로 되어있다. 조성은 a단조로 시작되어 중간에 E장조로 진행되다가 다시 a단조로 돌아간다. 처음 ‘recitative’부분만 ‘Lento’이고, 빠르기가 ‘Tempo di Minuetto’로 변한다. 4/4박자로 시작되어 변박이 많이 사용되었다. [표 5]는 곡의 형식에 따른 구분, 조성, 빠르기, 박자, 시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 5]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곡의 구성

	구분	마디	조성	빠르기	박자	시의 내용	
A	a(9)	1-9	a	Lento	4/4	바람둥이 같은 남자를 방울새에 비유하며 그러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고 말한다	
B	간주(5)	10-14		Tempo di Minuetto	3/4		3/4 2/4 3/4
	b(8)	14-21					
	c(3)	21-23					
	간주(3)	23-25					
	d(8)	25-32					
	c1(3)	32-34					
	e(7)	34-40					
	c2(3)	40-42					
	간주(3)	42-44					
	f(4)	44-47					
g(14)	47-60						
B'	b1(8)	61-68		E	3/4		3/4 2/4 3/4
	c(3)	68-70					
	간주(3)	70-72					
	d1(8)	72-79					
	c3(3)	79-81					
	e1(7)	81-87					
	c4(4)	87-90					
	h(6)	91-96					
i(12)	97-108	12/8 9/8 12/8					

	b2(5)	109-113	a	3/4	
	b3(6)	113-118			
	후주(5)	118-122			

## 2) 곡 분석

### (1) A부분

A부분은 총 9마디로 되어있다. a단조이고 4/4박자이며 빠르기는 ‘Lento’이다.

대사를 말하듯이 노래하는 형식의 ‘recitative’로 시작된다. 마디1-3의 반주는 아주 단순하다. 마디의 첫 박에 화음을 눌러 4박자동안 유지한다. 마디4의 오른손 화음에는 짧은 앞꾸밈음이 있고, 스페인풍 기타의 라스게아도 주법이 반주 부분에 보인다. 라스게아도는 스페인어로 긁다라는 뜻으로, 여러 선을 한꺼번에 긁어 우아하게 선율을 이루는 주법을 말한다.<sup>21)</sup>

#### [악보 5-1]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4

The musical score for the 4th measure consists of two staves. The upper staff is a vocal line in treble clef with a common time signature (C). It contains the notes G4, A4, B4, A4, G4, F4, E4, D4, with lyrics 'me ro te de rri bó el a' underneath. The lower staff is a piano accompaniment in treble and bass clefs with a common time signature. It features a circled note on the treble staff labeled '꾸밈음' (ornament) and two boxed chord diagrams in the bass staff labeled '라스게아도 주법' (rasgueado technique).

21) 병전자랑, 『스페인 음악의 즐거움』, 김중만 역.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8). p.98.

마디7의 오른손 화음에도 짧은 앞꾸밈음이 있다. 마디7-9의 오른손은 A-G#-F#-F#-E로 반음계 하행하며, 왼손은 B-C-C#-D로 반음계 상행한다.

[악보 5-2]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7-9

mis te aún no le ha llas te cuan do le per dis... te.

꾸밈음

반음계

(2) B부분

B부분은 총 51마디로 되어있다. 빠르기는 ‘Tempo di Minuetto’로 변한다. 박자는 3/4박자로 시작되어 부분 e에서 2/4박자로 변박되었다가 다시 3/4박자로 진행된다.

마디10-12의 간주는 부분 b의 노래 선율을 미리 제시한다. 부분 b의 마디 14-17의 노래 선율을 쉼표 없이 연결하였다. 마디13에서 ‘rallentando’로 점점 느려지고 마디14에서 본래의 빠르기가 된다. 마디14-16의 노래 선율을 두 음씩 보았을 때 3도의 음정으로 되어있다. 마디14-15의 노래 선율을 마디15-16의 반주에서 받아 똑같이 반복하고, 마디16-17의 노래 선율도 반주의 마디17-18에서 반복된다. 이때 반주는 셈여림의 대조를 살려서 연주한다. 노래 선율이 반주에서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가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가사 “Si de rama en rama, Si de flor en flor”처럼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방울새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보 5-3]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10-16

Tempo di Minuetto

a tempo *p*

Si de rama en

a tempo

rall.

ra ma si de flor en

*f* *p*

마디18-20은 노래 선율과 동일한 음이 반주에서도 나온다. 노래 선율보다 한 옥타브 아래에서 오른손으로 연주된다. 왼손의 상성부는 a단조의 3음인 C음이 계속되고 왼손의 하성부는 오른손의 3도 아래의 음정으로 움직인다. 마디18-19의 노래 선율이 마디20-21의 오른손 반주에서 나오며, 오른손의 F음이 트릴로 장식되어있다. 트릴의 사용은 “Ibas saltando, Bullendo y cantando”의 가사처럼 신나게 이리저리 뛰어 다니는 방울새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보 5-4]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18-21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taves. The upper staff is the vocal line, and the lower staff is the piano accompaniment. The key signature has one flat (B-flat), and the time signature is 2/4. The vocal line has lyrics: "i has sal tan do bu llen do y can tan do ¡Di cho so quien".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trill on the F note in the right hand and a triplet in the left hand. A dynamic marking of *f* (forte) is present in the piano part.

부분 c인 마디21-22의 노래 선율은 8분음표의 음형으로 되어있고 같은 음을 두 번씩 반복하며 하행한다. 반주의 오른손도 노래 선율과 같은 음을 연주하며 E-D-C-B-A-G#으로 하행하며, 왼손은 오른손의 3도 아래의 음정인 C-B-A-G-F-E로 하행한다. 노래 선율과 반주의 오른손의 내성은 스타카토로 연주한다. 가사 “Dichoso quién ama Las ansias de amor!” 처럼 사랑의 기다림과 행복을 스타카토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보 5-5]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21-22

¡Di cho so quien a ma las an sias de a

마디23부터의 간주에서 오른손의 상성부는 E-D-C-B-A로 하행하며, 내성의 두음 슬러 된 두 음은 2도의 음정으로 되어있다. 왼손의 하성부는 G#-A-B-C로 상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5-6]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23-24



마디25부터의 부분 d는 부분 b와 동일하게 노래 선율을 반주가 그대로 받아서 연주한다. 마디25-26의 노래 선율을 마디26-27의 반주가 반복한다. 마디25-26의 가사 “Ibas saltando(멈추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서)”가 마디 27-28에서 반복되고, 반주도 똑같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디28은 노래 선율과 반주의 오른손이 같은 음으로 진행되며, 마디28-29의 오른손의 음을 마디29-30의 왼손이 그대로 받아서 연주한다. 마디29와 마디31은 노래 선율이 16분음표의 음형으로 되어있고, 멜리스마적인 선율을 볼 수 있다. 또한 마디31의 노래 선율은 G#-F#으로 움직이며 증2도를 사용했다. 증2도의 사용은 스페인 음악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베리아반도 내 여러 민족들의 문화가 혼합되어 음악요소로 나타남으로써 스페인 음악을 나타내는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sup>22)</sup> 마디29-30의 노래 선율이 마디30-31의 오른손 반주에 반복되며, 마디30-31의 왼손은 오른손의 6도 아래의 음정으로 움직인다. 마디31-32에서는 노래 선율과 왼손의 반주가 6도의 화음을 이루며 연주된다.

[악보 5-7]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28-31

부분 c1은 부분 c의 노래 선율처럼 8분음표로 순차하행 되지는 않지만, 부분 c의 가사와 같고 8분음표의 음형으로 되어있다. 반주도 부분 c와 동일하게 노래 선율과 같은 음을 연주한다. 마디33-34의 왼손은 C-C#-D로 반음계 상행한다.

22) 배지숙, “오브라도르스의 《7개의 고전적인 스페인 노래》에 나타난 플라멩코 특징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0.

부분 e인 마디34-39의 노래 선율은 각 마디의 첫 음이 A-G-F-E-D-C로 순차 하행하며 마디39-40의 노래 선율은 반음계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의 반주는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반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디34-39의 오른손은 A음으로 시작하여 각 마디의 첫 음이 노래와 동일한 A-G-F-E-D-C로 하행한다. 왼손의 마디34-36은 C#-B-A로 하행하며, 마디37-40의 왼손은 C-B-A-G#-F#F#-E로 하행한다. 마디35부터 2/4박자로 변박이 되고 노래 선율에는 스타카토와 16분음표의 사용이 보인다. 이것은 “Ibas saltando, Bullendo, cantando”의 가사처럼 노래를 부르면서 뛰어다녔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악보 5-8]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34-40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shows measures 34-39. The vocal line begins with a piano (*p*) dynamic and a staccato (*stacc.*) marking. The lyrics are "mor I bas, i bas sal tan do bu llen do, can tan do,". The piano accompaniment has a right hand with a descending scale and a left hand with a similar descending line. The second system shows measures 40-41. The vocal line has a piano (*p*) dynamic and a staccato (*stacc.*) marking. The lyrics are "¡Ah! Di cho so quien". The piano accompaniment has a right hand with a descending scale and a left hand with a similar descending line. The left hand is marked with "반음계" (chromatic) and a piano (*p*) dynamic.

부분 c2는 부분 c, 부분 c1의 가사와 같고 부분 c의 하행하는 노래 선율과 동일하다. 그러나 8분음표로만 이루어졌던 부분 c, 부분 c1의 노래 선율과는 달리 마디42에 ♩ ♪ 리듬이 사용되었다. 반주는 부분 c, 부분 c1과 동일하게 오른손에서 노래 선율과 같은 음을 연주한다. 마디42부터의 간주는 오른손과 왼손이 A음에서 8도 위의 A음으로 도약하여 오른손은 A-G-F-E-D-C로 순차 하행하고, 왼손은 A-C#-D-E로 상행한다. 마디43에서 ‘ritardando’하여 점점 느려진다. 부분 f인 마디44-47의 노래 선율은 같은 음을 두 번씩 반복하며 상행하는 듯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E-D-C로 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주의 오른손도 노래와 같은 음을 한 옥타브 아래에서 연주한다.

부분 g인 마디47-48의 반주는 마디42-43의 간주와 비슷하다. 으뜸음인 A음으로 시작한 간주와 달리 마디47은 노래 선율과 동일한 딸림음인 E음으로 시작한다. E음에서 8도 위의 E음으로 도약하여 E-D-C-B로 순차 하행한다. 왼손은 8도 아래의 E음으로 도약하여 E-G#-A-B로 상행한다. 마디 48부터의 노래 선율은 마디47의 오른손 선율을 반복하여 노래한다. 마디 48-50은 마디48의 리듬을 3번 반복한다. 마디의 첫 박에 8분첩표가 있고, 2번째 박자에 악센트가 사용되었다. 이것은 “Llanto”라는 단어의 한탄과 울부짖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디50-51에서는 노래 선율이 E-D-C-B로 순차 하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주의 마디48-49는 오른손의 내성에서 노래 선율과 같은 음을 연주하며, 마디50은 노래 선율과 같은 음을 한 옥타브 아래에서 연주한다. 왼손의 반주는 마디47의 왼손과 동일하게 E-G#-A-B로 상행하는 것이 두 번 반복되며, 마디50-51에서는 G#-A-B로 상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5-9]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47-51

마디52-54의 노래는 “iAy!”를 B음으로 지속한다. 반주의 마디52-54는 마디51을 반복한다. 똑같은 음으로 반복되지만 마디52는 마디51의 왼손이 한 옥타브 위로 올라갔고, 마디53은 마디52와 비교했을 때 양손이 한 옥타브 위로 올라가서 연주한다. 마디54는 마디53에서 양손이 다시 한 옥타브 올라가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디57의 반주는 마디47의 반주와 거의 비슷하나, 마디47의 왼손보다 한 옥타브 위에서 연주된다. 마디58의 반주가 마디59에서 반복된다.

마디60은 화려한 카덴차가 나온다. ‘ossia(웃시아)’는 두 가지 연주법이 있는 경우, 어느 연주법을 사용해도 좋다는 것을 지시한다. 두 가지 중 아래의 악보에서는 노래 선율이 G#-F#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디31과 동일한 음으로 증2도를 사용하였다.

[악보 5-10]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60

The image shows a musical score for measure 60. It consists of two staves. The top staff is labeled 'Cadenzion' and contains a complex melodic line with many notes and accidentals. The bottom staff is labeled 'Ossia' and contains a simpler alternative melodic line. A circled note in the Ossia part is labeled '증2도' (augmented second).

### (3) B' 부분

B' 부분은 총 62마디로 되어있다. 조성은 a단조로 시작하여 E장조로 진행되다가 다시 a단조로 돌아온다. 박자 또한 3/4박자로 시작되어 변박이 많이 사용되며 다시 3/4박자로 돌아온다.

부분 b1은 부분 b의 가사와 노래 선율이 똑같이 반복된다. 반주도 거의 동일하나 약간의 변화가 있다. 마디61은 왼손의 첫 음이 단음이 아닌 옥타브로 되어있고, 마디62는 'sforzando'의 지시어를 볼 수 있다. 왼손은 8분음표로 되어있다. 마디70부터의 간주도 B부분의 간주와 거의 동일하나 약간 변화되어 마디70의 오른손은 모든 음이 3도의 화음으로 되어있다. 또한 마디71의 오른손 내성은 앞의 간주와 달리 D-C로 움직인다.

부분 d1인 마디72는 부분 d와는 달리 노래 선율의 아티큘레이션이 레가토로 되어있다. 부분 c3인 마디79부터는 노래 선율이 부분 c1과 같으나 스타카토로 진행되며, 마디80의 왼손 C# 음이 옥타브로 되어있다. 부분 e1은 부분 e와 같으나 마디86에서 'rallentando'하여 점점 느려진다. 부분 c4는 부분 c2와 동일하나 마디87에 'rallentando'의 지시가 있고, 마디89-90은 가사 "iAh! de amor"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분 h는 E장조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디91-92는 반주와 노래 선율이 서로 노래를 주고 받는다. 마디91에서는 16분음표로 상행하는 반주가 나오고, 마디92는 노래 선율이 16분음표로 상행하며 진행된다. 또한 마디93-94는 반주의 오른손 A음을 받아서 노래가 A음을 노래한다.

[악보 5-11]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91-93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covers measures 91 and 92. Measure 91 is marked 'Quasi cadensa.' and features a piano accompaniment with a 16-measure ascending run in the right hand. The vocal line has an 'iAh!' marking. Measure 92 continues the piano accompaniment. The second system covers measure 93, where the vocal line receives an 'A' note from the piano accompaniment.

마디95-96은 노래 선율과 반주가 같은 음을 연주한다. 그러나 마디95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화음의 A음과 G#음은 노래의 다음 음을 미리 알려준다. 마디95의 멜리스마적인 노래 선율은 B-A-G#-F#-E-D#로 하행한다. 마디96은 노래 선율과 오른손이 D#-E-F#으로 상행하고, 내성도 F#-G#-A로 상행한다. 마디96은 F#-B-B의 노래 선율을 반주가 받아 한 옥타브 아래에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악보 5-12]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96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ystems. The first system is for measure 95, showing a vocal line in treble clef with lyrics '¡Ah! á ¡Ah! á ¡Ah! á' and a piano accompaniment in grand staff. The second system is for measure 96, continuing the vocal line and piano accompaniment. The piano part in measure 96 includes a 'ten.' marking and an arrow pointing to the right hand, indicating the octave transposition of the vocal line.

부분 i는 3/4박자로 변박되어 진행된다. 마디97에는 ‘Amplio(넓은)’이라고 적혀있다. 마디98의 노래 선율은 꾸밈음을 사용했고, E음을 반복할 때는 피아니시모의 썸여림으로 노래한다. 마디99는 32분음표의 움직임과 리듬을 잘 살려서 노래한다. 마디99의 노래 선율이 오른손 반주에서 연주된다. 그러나 노래의 음을 그대로 연주하지는 않으며, 한 옥타브 아래에서 연주된다. 마디 99의 왼손 하성부는 A-B-C#으로 상행한다. 마디100은 피아니시시모의 썸여림으로 노래가 A음을 반복하며, 노래의 C#음에는 ‘deciso’로 연주하라는 지시어가 있다. 마디101의 마지막 박에서 노래 선율은 16분음표로 된 6개의 음이 하행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디102마디까지 노래 선율이 하행한다.

마디104의 노래 선율에서도 꾸밈음을 볼 수 있고, 멜리스마적인 선율을 볼 수 있다. 마디105부터의 카덴차에서 반주가 마디의 첫 박에 화음을 연주하면 노래는 그 화음 안에서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디105-107에서 3번 반복된다.

[악보 5-13]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103-107

부분 b2는 a단조로 진행된다. 부분 b, 부분 b1과 비교했을 때 부분 b2의 노래 선율은 A음의 4도 아래인 E음에서 시작된다. 또한 마디109-111의 노래 선율은 레가토가 아닌 스타카토로 되어있다. 반주 마디109의 오른손 세 번째 박은 노래 선율과 같은 G#음을 사용하였고, 마디 111의 오른손 반주는 부분 b, 부분 b1의 C-A와 달리 C-G음으로 되어있다. 마디112의 오른손은 마디109의 노래 선율을 연주한다. 부분 b3인 마디113부터는 부분 b2의 노래 선율과 반주를 노래 선율에서 그대로 반복한다. 마디117-118은 마디116-117를 그대로 반복하나, B음에 늘임표가 붙어있다.

[악보 5-14]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109-111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two staves. The upper staff is the vocal line in treble clef, and the lower staff is the piano accompaniment in bass clef. The key signature has one flat (B-flat), and the time signature is 4/4. The tempo marking 'a tempo' is written above the first measure of the vocal line. The lyrics 'va de ra ma en ra ma va de flor en' are written below the vocal line. The first measure of the vocal line is enclosed in a box.

후주는 마디 42부터의 간주가 2번 반복되며 곡이 끝난다.

[악보 5-15]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마디118-122



제5곡은 ‘recitative’로 시작하며 반주에서 기타의 라스게아도 주법을 볼 수 있다. B부분은 ‘Tempo di minuetto’로 빠르기의 변화가 있고, 간주는 노래 선율을 미리 제시한다. B부분에서 멜리스마적인 노래 선율을 볼 수 있고, 부분 d와 부분 g의 노래 선율에서는 G#-F#의 증2도를 사용하였다. 부분 g에서 노래와 반주는 같은 리듬을 반복하였다. 제5곡은 노래 선율을 반주에서 받아 그대로 반복하는 부분이 있고, 많은 부분에서 노래와 반주가 같은 음을 연주한다. 또한 마디42의 간주가 마디47과 마디57, 그리고 후주에 반복되면서 통일감을 주고 있다.

## IV. 결 론

오브라도르스(Fernandos J. Obradors, 1897-1945)는 스페인의 작곡가로, 폭넓은 영역의 가사를 사용하여 성악곡을 작곡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성악곡은 총 4권으로 이루어진 《스페인 예술가곡집》이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2권은 총 5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곡 〈티라나 델 사란디요 *Tirana del Zarandillo*〉는 작자미상의 가사이고, 자기도취에 빠진 약삭빠른 주인공이 티라나(노래)를 부르는 내용이다. 전주는 노래 선율을 미리 제시하였고, 반음계의 진행이 많았다. 노래 선율과 반주에서 당김음과 꾸밈음이 사용되었다. 제1곡은 프레이즈 끝에 ‘rallentando’를 사용한 부분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제2곡 〈충고 *Consejo*〉는 세르반테스(Miguel de Cervantes, 1547-1616)의 『돈키호테』 본문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여자는 유리 같기에 시험해 보지 말아야 하며, 깨질 위험이 있는 곳에 놓으면 안된다는 내용이다. 제2곡도 제1곡과 동일하게 노래 선율을 전주에서 미리 제시하며, 노래 선율이 간주에도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사람이 노래하듯이 반주와 노래 선율이 멜로디를 주고 받는 부분이 있고, 노래 선율과 반주는 가사를 잘 표현하고 있어 노래와 반주가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곡이 진행된다(악보 2-4).

제3곡 〈엘 툼바 이 레 *El tumba y lé*〉는 작자미상의 가사이고, 철없는 순진한 어린 소녀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내용이다. 제3곡은 2가지 리듬을 반복하여 사용한다. 반복되는 2가지 리듬은 A부분의 부분 a(악보 3-2)와 부분 b(악보 3-3)의 노래 선율이다. 부분 a가 반복되어 사용될 때 노래 선율은 반복되지만 가사와 반주는 반복되지 않는다. 후렴구인 부분 b가 반복될 때는 노래 선율과 노래 가사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분별로 반주가 달라지지만, 부분 b5의 반주는 부분 b2와 동일하다. 꾸밈음을 사용하였고, 노래와 반주가 함께 반음계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악보 3-7).

제4곡 〈아가씨와 대머리들 *La moza y los calvos*〉은 케베도(Francisco Quevedo, 1580-1645)의 시로, 엄마들에게 딸을 대머리에게 주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남자들은 대머리가 되어간다는 풍자적인 내용이다. 제4곡의 전주는 멀리서 들려오는 북소리인 듯한 왼손의 꾸밈음으로 시작된다. 왼손에는 8분음표의 화음이 계속되는데, 이것 또한 북치는 효과가 난다.

♪ ♪ 리듬과 ♪ ♪ 리듬이 사용되었고, 3/4박자와 6/8박자가 교대로 사용되는 헤미올라를 볼 수 있다.

제5곡 〈오만한 작은 오색방울새 *Confiado jilguerillo*〉는 카니사레스(José de Canizares, 1676-1750)의 대본에 의한 리테레스(Antonio de Literes, 1673-1747)의 《아시스와 갈라테이아 *Acis y Galatea*》중 갈라테이아의 아리아이다. 내용은 바람둥이 같은 남자를 방울새에 비유하며, 그러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고 말한다. 제5곡은 ‘recitative’로 시작하며 반주에서 기타의 라스게아도 주법을 볼 수 있다. ‘Tempo di Minuetto’로 빠르기의 변화가 있고, 간주는 노래 선율을 미리 제시한다. 멜리스마적인 노래 선율을 볼 수 있고, 노래 선율에서 G#-F#의 증2도를 사용했다(악보 5-7, 악보 5-10). 제5곡은 노래 선율을 반주에서 받아 그대로 반복하는 부분이 있고, 많은 부분에서 노래와 반주가 같은 음을 연주한다. 또한 마디 42의 간주가 마디 47과 마디 57, 그리고 후주에 반복되면서 통일감을 주고 있다. 2권의 5곡은 다양한 가사를 사용하였고, 스페인 음악의 특징을 볼 수 있다.

비교적 단조로운 1권의 노래 선율에 비해 2권의 성악 선율은 고음이 더 많이 사용되며, 선율이 더 화려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권과 2권의 공통점은 노래가 멜리스마적인 선율로 되어있고, 반주는 기타의 라스게아도 주법을 사용하였다. 프레이즈 끝에 꾸밈음을 사용하여 장식하였고, 같은 리듬을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오브라도르스의 《스페인 예술가곡집》 2권이 연주계에 소개되어지고, 2권의 곡들을 접하는 연주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마상영. 『스페인 문화예술의 산책』, 서울: 도서출판 청동거울, 2006.
- 병전자랑. 『스페인 음악의 즐거움』, 김종만 역.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8.
- 안영옥. 『스페인 문화의 이해』,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 최경연. 『쉽게 배우는 스페인어 디션과 문화』,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3.
- 최선화. 『스페인 현대음악 입문』, 서울: 음악춘추사, 2004.

### 2. 학술지논문 및 사전

- 김선옥. “스페인 예술가곡의 역사적 고찰과 문헌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논총 제18집』, (1998), p.27.
- 남용. 『핸드북 음악용어사전』, 서울: 일신서적출판사, 1994.

### 3. 학위논문

- 배지숙. “오브라도르스의 《7개의 고전적인 스페인 노래》에 나타난 플라멩코 특징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이진숙. “F. J. Obradors의 Canciones Clásicas Españolas Volumen 1 분석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한선우. “스페인 예술가곡의 특징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4. 악보 및 음반

Obradors, Fernando. 『Canciones Clásicas Españolas』, Volumen II, Madrid: Union musical ediciones S.l, 1992.

Fortin, Lyne. & Gonthier, Esther. 「Gardens of Spain」 (2010.10.24 발매).

#### 5. 인터넷 자료

“그리스 신화 다나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97700&cid=58143&categoryId=58143> [2016년 10월 11일 검색].

“Antoni Lliteres Carrió”. [http://en.wikipedia.org/wiki/Antoni\\_Lliteres\\_Carri%C3%B3](http://en.wikipedia.org/wiki/Antoni_Lliteres_Carri%C3%B3) [2016년 10월 19일 검색].

“Obradors”. [https://en.wikipedia.org/wiki/Fernando\\_Obradors](https://en.wikipedia.org/wiki/Fernando_Obradors) [2016년 10월 31일 검색].

# ABSTRACT

## An Analysis of Obradors' 《Canciones Clásicas Españolas》 Volume II

Ji, Hye Jin

Department of Collaborative Piano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In this paper volume two of Fernando J. Obradors' (1897-1945) 《*Canciones Clásicas Españolas*》 is analyzed and studied. The second volume which has not yet been studied has been chosen for study instead of the first volume which has already been mainly played and researched.

The second volume is not a song cycle on the same theme but a compilation of five songs on various themes. The lyrics of the first and the third songs are written by unknown authors and the second, fourth and fifth songs use writings by famous Spanish authors from 16<sup>th</sup> to 18<sup>th</sup> century.

In the first song 〈*Tirana del Zarandillo*〉 a narcissist shrewd main character sings a traditional Spanish music genre Tirana. There are many chromatic progressions and syncopation, a peculiar Spanish

musical trait. Ornaments are used for decoration at the end of phrases. The second song *〈Consejo〉* sings that a woman is like glass that should not be tried or put in a place where there is risk of shattering. The staccato constantly used in the melody of the song and accompaniment can be seen as expressing the “Vidrio”. The third song *〈El tumba y lé〉* which progresses in a fast tempo is a story of a naïve innocent girl telling her thoughts. A melody sung roughly with a dynamic of a forte and the rhythm of the chorus is repeated. The fourth song *〈La moza y los calvos〉* tells mothers not to give their daughters to a bald head however the content is satirical because men are getting bald. The tonality and Phrygian mode makes a harmony and the rhythm of the dance music is repeated. The fifth song *〈Confiado jilguerillo〉* compares men who are womanizers to a greenfinch and says that such behavior can hurt others. The melody of the song is melismatic and augmented 2<sup>nd</sup> is used. The accompaniment shows rasgado guitar playing style. Also the repeatability of the rhythm increases the unity of the song.

Volume two of Obradors’ *《Canciones Clásicas Españolas》* is a collection of songs that expresses the emotions of the lyrics in Spanish musical features that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Obradors’ songs. Through this paper I hope that Obradors’ *《Canciones Clásicas Españolas》* volume two is introduced to the performance field and is helpful to the performers who have encountered the songs from volume two.